



글로벌선진학교 제3캠퍼스 개교식에 참석한 교계, 교육계,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개교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글로벌선진학교, 펜실베니아 제3캠퍼스 개교

글로벌선진학교(이하 GVCS)가 지난 8월 20일 펜실베니아 주 스코틀랜드 시에서 개교했다. 학생 40여 명, 교직원 20여 명으로 시작되는 이 학교는 철저한 기독교 교육과 함께 졸업생 전원을 미국 50위권 내의 명문대에 진학시킨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특히 목회자 자녀와 선교사 자녀들에게 장학 혜택 기회를 부여해 미래의 기독교 리더로 세울 계획이다.

2004년 충북 음성, 2011년 경북 문경에 각각 개교한 바 있는 GVCS의 제3캠퍼스인 이곳은 185에이커 부지에 80여 건물이 들어서 있다. 원래 참전용사 자녀 학교로 120년 동안 사용되던 곳으로 GVCS는 인근의 기독교 학교인 브로드포딩 크

리스천 아카데미와 컨소시엄 형태로 이곳을 운영한다.

한인교계도 이 학교와 뜻을 함께 하고 있다. 나성영탁교회 전 담임이었던 박희민 목사가 후원회장을 담당하고, 미주성시화운동본부의 상임본부장 이성우 목사가 상임운영이사를 맡은 가운데, 현재 약 15명의 후원운영이사와 20여 개의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후원을 자처하고 나섰다. 이들은 제3세계 출신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목회자나 선교사 자녀들도 후원할 예정이다. 현재 월 200불 이상 장학헌금을 하면 후원이사가 될 수 있으며 각 지역별로 학생을 추천하고, 학교 운영 등에 대한 지원과 논의 역할을 하게 된다.

8월 20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개교기념식에는 남진석 설립이사장, 교육감 빌 윈드, 교장 조성률 박사, 한국전 참전용사회원, 미국교회 지도자들, 후원이사와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이날 개회예배에는 이성우 목사의 사회와 한정길 침례교수도지역 협의회 전회장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개교기념식 격려사에서 남진석 이사장은 “한국 교육이 글로벌 교육의 메카로 자타가 인정하는 미국에 공식적으로 기여하는 기회를 갖게 된 쾌거”라며 참석자들과 개교의 기쁨을 나누었다. 문의는 717-830-9356(강유준 교감), 614-725-6632 (송하은 간사)로 하면 된다.

“일본 최초 기독교대” 아베 안보법 반대 성명

전국 100개 대학 반대집회로 이어져

일본 최초 기독교 대학으로 알려진 메이지가쿠인대학교(메이지학원대학, 이하 메이지대)가 일본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안전보장관련법안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메이지대는 먼저 “우리는 1945년 여름의 패전에 이르기까지 국가체제에 추종하고 그 전쟁에 협력하여 많은 학생들을 죽음의 전쟁터로 내 몬, 잘못된 과거의 죄책을 지니고 있다”고 밝히고, “그 역사를 깊이 반성하여 패전 50주년이 되는 1995년 학원장 이름으로 ‘메이지가쿠인의 전쟁 책임, 전후 책임 고백’을 발표하고, 미래의 진정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를 메이지가쿠인 유지는 20년 전 선배들이 다짐하였던 고백을 계승하여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전후시대 일본의 책임을 자각하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안전보장관련법안(이하 이 법

안)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여기에 표명한다”고 밝히고, “이 법안의 기본적인 목적은 지금까지 헌법위반이라고 간주되었던 ‘집단적 자위권’을 합헌이라고 강변함으로써 세계 각지에서 자위대로 하여금 미군의 후방지원, 즉 전쟁의 병참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다”면서 “일본 국헌법의 평화주의를 우리 손으로 되찾고 그것을 통한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이 법안에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더불어 메이지대는 “정부, 여당이 다수 의석에 의지하여 헌법 위반이 분명한 이 법안의 강행체제를 노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 국이 열린 대화를 통한 민주적 합의를 지향하는 나라이기를 강력히 바란다”면서 “그동안도 소홀히 취급되어왔던 헌법의 평화주의가 더욱 무력화되어 일본이 다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할 존재가 될 수도 있는 상황 전개를 우리는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성명은 대학 지성들의 자각을 일깨워 26일 100개 대학 교수들이 공동으로 일본 아베 정권의 ‘안전보장관련법안’ 강행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교회 떠나기 전에”

세인 아이들만 목사...5가지 질문 먼저 해봐야

캘리포니아주 안렐포프 벨리에 위치한 웨스트사이드크리스천 펠로우십교회(Westside Christian Fellowship Church)의 세인 아이들만(Shane Idleman) 목사는 최근 크리스천포스트에 ‘교회를 떠날 때 고려해야 할 5가지 질문들’(5 Questions to Consider When Leaving a Church)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아이들만 목사는 칼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거나 교우들과의 관계를 정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랑이 아닌 정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관계를 정리할 때 면밀하게 고려해야 할 5가지 질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며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관련기사 9면에 계속]

“美 남침례회 선교사 수백명 감축 예정”

재정난 속 관련조직 구조 조정 미래에 변창할 수 있도록 할 것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미국 남침례회(SBC)가, 재정 부족으로 인해 600-800명의 선교사를 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침례회 해외선교부(IMB)는 올해 회계연도에서 총 2100만 달러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파송 형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남침례회는 선교사에게 사레비로 평균 월 4천3백 달러, 자녀교육비와 의료보험 등은 별도로 지급한다.

남침례회는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선교사 4,700명 가운데 자격이 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퇴직 신청을 받는다. 그리고 퇴직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선교와 관련된

조직을 구조조정해, 지출 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해외선교부는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해외선교부가 미래에 변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을 갈망하며, 혁신적인 비전을 갖고 선교사를 동원하고 훈련하며 앞으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8면 선교 씨에라리온 김성림 선교사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YEAR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최상의 호스피스를 사랑으로 제공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보조사, 소셜워커,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이 직접 방문하여 돌봐드립니다.
 정부인증기관으로 환자분에게 금전적부담이 없습니다.
 24시간 대기 서비스 제공
시에라 호스피스 케어 박영심 간호부장
 www.sierra-hospice.com Tel: (213) 380-1100 Cell: (213) 700-6989

피드몬트 대학교 학생모집

피드몬트 대학교는 글로벌 지식정보시대에 기독교 인재양성목적을 지향하는 기독교 정규종합대학교입니다. 피드몬트 대학교는 정규 종합대학교로서 학문은 **통전, 통합, 통섭의 융합학문(Consilience, 'A jumping together knowledge')**을 추구합니다. 많은 지원과 협력 부탁드립니다.

THINK
생각하라

ANALYZE
분석하라

CREATE
창조하라

FAITH
신앙

SCIENCE
과학

BETTER WORLD
더 나은 세상

PU 학과별 학사.석사.박사 학생 모집(00명)	
PU 한의과대학	PU신학 대학
PU 보육대학	PU음악 대학
PU 선교대학	PU ESL
PU 교육대학	PU ACL

www.piedmontuniversity.com

Piedmont University

1캠퍼스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20
 Tel: (323) 777-5269, Fax: (323) 777-3681
 Email: Registrar@piedmontuniversity.com, admissions@piedmontuniversity.com

2캠퍼스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 257-8176, Fax: (424) 257-8136

문영용 목사 1,250마일 자전거 완주 통일소망... 수익금은 길갈미션에 기부

“이 기간 동안 한국에서는 긴 마라톤 협상을 통해 남북 공동 합의문이 도출될 때까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그때 우리는 데스밸리 폭염을 뚫고 8,138피트 고지를 지나, 이른 아침 37도의 살을 에이는 추위에도 중단 없이, 맞바람이 온 몸을 휘감을 때조차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미 있고 값지게 성공적으로 완수 되었다.” - ACCC Cycling Project 페이스북

철인 3종 경기 선수 문영용 목사가 남북 통일의 소망을 안고 8월 27일, 워싱턴 주 타코마에 무사히 도착했다. 지난 16일 캘리포니아 주 부에나파크를 출발해 12일 동안 네바다 주, 오레곤 주를 거치며 미 서부 1,250마일을 종단한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한 감사한인교회에서 지원한 차량은 문 목사와 동행하며 문 목사를 보조했다. 그리고 매일의 상황을 SNS에 올려 성도들과 나누었다.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문 목사의 상황을 전해 듣고



캘리포니아 부에나파크 감사한인교회에서 출발한 자전거 종단이 워싱턴 주 타코마 중앙선교회에서 끝났다.

함께 기도했다. 포틀랜드에서부터는 김영길 담임목사도 지원 차량에 탑승해 문 목사와 함께 했고 타코마에서 종단 완주의 기쁨을 누렸다.

문 목사가 도착한 타코마 중앙선교회에서는 당일 저녁 감사예배를 드리고 축하 리셉션도 하는 등 기쁨에 동참했다. 한편, 이번엔 담

진된 후원금은 중독자를 치유하고 선교하는 길갈 미션 감사의 집에 기부된다.

김준형 기자

OC한인회관 건립 위해 힘모아

OC교계 단체들...1천 달러 OC한인회에 전달



(왼쪽으로부터)곽재필 목사회장, 최승구 원로목사회장, 윤우경 평신도연합회장, 김기등 한인회장, 김기동 교협회장, 김중대 장로협회장 겸 한인회 이사장, 이영현 한인회 부회장

오렌지카운티(OC) 교계가 OC한인회관 건립을 위해 1천 달러를 기부했다. OC 교계 5대 단체가 연합해 지난 8월 15일 개최한 광복 70주년 기념예배에서 나온 헌금 전액이다. OC교협·목사회·원로목사회·장로협·평신도연합회는 31일 오전 11시 OC한인회 사무실을 방문해 이를 전달했다. OC 교계 지도자들은 “교계가 교회의 담을 넘어 한인사회와 적극 소통하며 발전에 작게나마 기여하고자 이번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기등 한인회장은 “한인회관 건립에 대한 교계의 적극적 관심

은 지역사회 발전과 연합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한인회관 건립에 더욱 박차를 가할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날 동석한 교계, 사회 지도자들은 약 1시간 동안 한인사회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들은 현재 3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OC 한인 인구를 섬기기 위해 450여 한인교회와 한인회에 주어진 과제가 많다는 데에 동의하고 이번에 건립될 한인회관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인회관 안에는 300-500여 명 수용이 가능한 강당을 포함해 다민

족들과 한인 차세대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고 전수하는 다양한 시설과 단체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 한인들을 위한 영사 업무 및 각종 행정 서비스도 유치해 한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특히 이곳에는 교계 단체들과 한인 청소년, 노인 단체들도 들어설 예정이라 큰 관심이 집중된다. 한인회는 현재 500만 달러 선에서 건립 장소를 모색하고 있으며 풀러튼, 부에나파, 스탠튼, 알바인, 가든그로브 등이 대상지로 꼽히고 있다. 현재까지는 약 80여 만 달러가 모금된 상태다.

“후배들 학업 격려위해”

총동문회장 강신권 목사 미주장신에 2천 달러 장학금 전달



강신권 목사(오른쪽)가 미주장신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강신권 목사(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가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재학생 4명에게 총 2천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총동문회장인 강 목사는 후배들의 학업을 격려하는 뜻에서 사재를 들여 기금을 마련했다. 강 목사는 8월 31일 가을학기 경

건회에서 설교한 직후 곧바로, 박지혜(학부생), 이윤숙(M.Div.), 장석주(M.Div.), 최경진(M.Div.)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강 목사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신앙과 지식 위에 미국과 세계를 변화시키라”고 권면했다. 김준형 기자

“렛어스교회 창립예배”



구본관 목사와 사모가 지방회장 강양규 목사 앞에서 창립서약을 하고 있다.

렛어스교회(Let Us Church)가 지난 8월 16일 오후 4시 치노에서 창립됐다. 구본관 목사가 개척하는 이 교회는 예수교미주성결교회 미주총회 서부지방회 소속이다. 담임 구본관 목사는 성결대학교

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아주사대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 중이다. 이 교회는 주일 오후 2시에 주일예배, 금요일 오전 10시에 성경공부, 토요일 오전 7시 30분에 지역사회 봉사를 한다. 문의: 972-561-0300

LA 군사랑선교회 구국 평화 기도 모임



군사랑선교회 구국 평화 기도 모임에서 회장 김희창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LA 군사랑선교회(CLMM)가 지난 8월 29일 오전 11시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구국 평화 기도 모임을 열었다. 이 모임은 부회장 차기학 목사의 인도로 시작돼 회장 김희창 목사가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사 60:14-22)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원로 사무총장인 이신모 장로가 구국 평화 중보 기도회를 인도했다.



장태원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목사
기독교교육학 석사
목회학 박사
교육목사 32년
명지, 대광학원교육실장 20년
총신(예장측), 명지전문대, 목원대 등 20년
LA 새문안교회 부목 1년
겨자씨어린이선교회 대표
21C평생교육원 원장
예람어린이성경, 중1 성경교과서 등 48권의 저서

LA선교교회 담임 이.취임감사예배

(박성도목사 이임, 장태원목사 취임)

모시는 글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에서 25년간 사역 하시던 박성도 목사님은 안식년 기간 동안 LA선교교회를 창립하여 2년 2개월간 담임하시고, 선교지 코스타리카로 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후임으로 장태원 목사님이 새로운 담임으로 취임하시게 되었기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5년 9월 6일 오전 11시
- 전화 : (213)910-7573
- 장소 : 927 S Bonnie Brae St, Los Angeles, CA90006

|| 그리스도인의 향기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마22:39)
너희는 스스로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좀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거나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훔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마6:19-21)



박형만 장로가 서독 광부의 아메리칸 성공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향기로운 나의 인생>에 친필 사인을 하고 있다.

만희복지재단 이사장
노인센터 이사장

박 형 만 장로(은혜성로원교회)

그리스도인의 비범한 삶은...이웃사랑 실천

그리스도인의 비범한 삶은 자신을 비우고 순종할 때 가능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 나누고 베푸는 이웃사랑 실천에서
만희복지재단은 생명 살리는 내 인생의 예수사랑 실천무대
노인센터는 이민 1세와 다음 세대 간의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래

박형만 장로는 서독 광부 출신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시킨 보기 드문 인물 중 한 사람이다.
2014년도에 출간된 그의 자서전 <향기로운 나의 인생(부제: 서독광부의 아메리칸 성공기)>를 보면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비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박형만 장로는 1937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다. 어린시절 매우 가난

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했지만 결코 기죽는 법이 없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 하는 그의 반듯한 성품은 운동에서도 공부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의협심도 강해 백제의 계백장군의 피를 물려받았음이 분명하다고 친구들은 말하기도 했다. 그 뿐만 아니라 친화력이 좋았던 박 장로 주변에는 항상 친구들이 많이 따라붙었다. 그의 타

고난 성품을 잘 알 수 있는 대목들이다.
그런 그가 가족의 가난을 청산하고자 다니던 건국대학교(정치외교학과 2년 수료)를 중도 하차하고 과감하게 서독 광부행을 결정했다. 그리고 1964년 제2진에 선발되어 서독 루르 엔센광산으로 떠났다.
그의 자서전에서 그는 그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던 어머니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한다. 야니, 가슴이 미어진다고 한다. 박 장로의 나이 올해로 벌써 78세인데도 말이다. 그는 그 마음이 바로 '어머니'라는 이름이라고 입술을 깨물며 말한다. 어쩌면 오늘날 그가 만희재단을 설립하여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것도 다분히 그 '어머니'의 마음을 유산으로 받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만희재단 명은 박형만 장로의 '만'과 그의 부인 이숙희 권사의 '희'를 따서 만든 재단 이름이다.
그의 서독 광부행은 지긋지긋한 개인의 가난청산이기도 했지만 국가의 가난청산을 위함이기도 했다. 그 당시 고 박정희 대통령과 고 육영수 여사의 방문으로 말할필요도 없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던 눈물은 바로 '사랑'의 눈물, '애국'의 눈물이었다고 박 장로는 말한다.
그 가난을 청산하기 위해 박 장로는 사선을 넘나드는 1킬로미터 이상의 깊은 갭도로 매일같이 출근했다. 심지어는 하루에 2가지 직업을 뛰면서까지 근검절약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어린시절부터 어머니로부터 철저히 교육받은 정직함과 근검절약이 몸에 배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그 당시 서독 간호원으로 와 있었던 현재의 이숙희 권사와 결혼을 약속하고 1967년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이곳 미국으로 건너왔다. 그리고 그는 그 꿈을 이뤘다.
현재, 박 장로는 남부럽지 않은 부를 축적했다. 이 지역 제일가는 부자 중의 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부가 그냥 이뤄진 것은 결코 아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소유 아파트가 수십채인 지금도 그는 메니저에서 플래머까지 일인 다역으로 항상 바쁘다. 그것이 그의 '아메리칸 드림' 성공의 비결이다.
4.29폭동을 몸소 경험하고, 사랑하는 첫 아들을 교통사고로 3살에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아들못지 않은 딸 넷으로 그 빈 자리를 메우며 달려온 인생, 이제 그가 관심두는 것은 하나님 사랑 실천밖에 없

다. 불신자인 박 장로를 끝까지 인도하며 인도해 준 부인 이 권사의 신실한 모태신앙의 기도응답인지도 모른다. 현재까지 박 장로는 두 개의 교회당을 건립하여 양도했고, 현재 섬기고 있는 은혜성로원교회도 박 장로가 마련하여 하나님께 헌납한 곳이다.
그리스도의 '이웃사랑' 실천은 만희재단을 통해 고향 공주의 어려운 지체들과 장애우들을 섬겨가고 있다. 해마다 10월이 되면 그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비행기에 오른다. 그들에게 줄 사랑으로 그들에게서 받아오는 사랑이 더 많은 기쁨이 그리워지기 때문이다.
현재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노인센터도 박 장로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활기를 더해 가고 있다.
이민사회도 피해갈 수 없는 실버세대가 점차 늘고 있어서 노인센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박 장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노래교실, 컴퓨터교실, 사물놀이교실 등 23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실버세대 위로의 장을 넘어 이민 1세와 2-3세 간의 가교역할로서의 노인센터는 박 장로의 또다른 '아메리칸 드림', 그리스도인의 비범한 삶, 이웃사랑 실천의 꿈이기도 하다.



박형만 장로(맨 왼쪽)는 주일 대예배에서 찬양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있다.

이영인 기자

Advertisement for Hyundai car sales, featuring a white car and a salesperson. Text: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Advertisement for Saevit Acupuncture Clinic. Text: '새빛한의원',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Services listed include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Large advertisement for Laort College. Text: 'Earn your Associate degree in just... ONE YEAR!', 'LAORT COLLEGE', 'WE PUT EDUCATION TO WORK'. Lists various programs like Accounting, Business Management, etc. Includes contact info: 'LAORT.EDU', '1.800.998.2678'.



새크라멘토 시온장로교회가 교회 재산을 포기하더라도 PCUSA 탈퇴하겠다는 결의를 했다.

“모든 재산 포기 PCUSA 탈퇴” 성도 97% 찬성 새크라멘토 시온장로교회...하나님 말씀 붙들고 타협 않겠다

PCUSA(미국장로교)에 속한 한 한인교회가 교단의 동성결혼 정책과 자유주의화에 반대하며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교단 탈퇴를 결의했다. 새크라멘토에 있는 시온장로교회는 지난 8월 30일 공동의회 결과, 성도 97%의 찬성으로 교단 탈퇴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교회가 잃게 되는 재산은 적어도 300만 달러 이상된다. PCUSA에 속한 교회는 교단 탈퇴 시 재산은 교단에 귀속되고 노회가 처분권을 가진다. 하지만 각 노회마다 “은혜로운 결별 정책(GDP)”을 수립해 성도 절대다수의 찬성, 선교 분담금 납부를 포함한 몇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재산을 유지하면서 교단을 탈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이 교회가 속한 새크라멘

토노회는 지난 5월 정기노회에서 교회가 어떤 경우에도 재산을 유지한 채로는 교단을 탈퇴할 수 없다고 원천봉쇄했다. 현재 미주 전역에서 동성결혼 문제로 인해 교단 탈퇴가 가속화되자 일부 노회들이 GDP를 수정하고 있는데 새크라멘토노회는 가장 강력한 수위로 GDP를 개정할 경우다. 성도 다수가 교단을 떠나기로 할 경우에도 교회 재산은 노회에 처분권이 주어진다. 만약 교단을 탈퇴하지는 축과 잔류하지는 축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에는 노회가 이를 교회 분열로 판단할 수도 있다. 시온장로교회의 이철훈 담임목사는 “종교다원주의와 자유주의의 물결이 거세어져 성경의 말씀을 버리고 결혼의 정의를 바꾸어,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결정한 교단과 민

음을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눈물과 땀으로 지은 성전과 교회 재산을 빼앗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타협하지 않겠다고 한 교인들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또 “청년들과 EM, 자녀들까지 300명의 교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할지 아직 모르나 우리는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걷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공동의회 결과를 노회에 보고할 계획이며 노회와의 조정 절차를 거친 후 타 교단으로 이명하게 된다. 이 목사는 현재 ECO(복음주의연약장로회) 가입을 당회 차원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새크라멘토노회에 속한 한인교회 가운데 수도한인장로교회도 교단 탈퇴를 논의 중이다. 김준형 기자



LA한인회 주최 ‘호스피스 세미나’에서 시에라 호스피스 케어의 박영심 대표가 호스피스 케어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편안한 임종 도와드려요” LA한인회 주최...호스피스 케어 서비스 알면 유익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가 주최하고 시에라 호스피스 케어(대표 박영심)가 주관한 ‘호스피스 세미나’가 2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LA한인회관 1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많은 한인들이 참가하여 점차 높아지고 있는 한인 사회의 호스피스 환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말해주었다. 먼저 시에라 호스피스 케어의 호스피스 주치의인 김영선 박사는 어떤 환자가 호스피스 케어 대상 환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 대상자는 말기 암 환자 등과 같이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6개월 미만의 시한부 진행성 질병 등의 호스피스 진단을 받은 환자, 그리고 가족과 상의 후 통증 및 증상 완화 치료를 선택한 환자 등이다. 김정아 간호사는 어떤 호스피스 서비스가 있는가에 대해 설명했다. 간호 서비스, 영적 상담 서비스, 의료 사회 복지 상담 서비스, 신속한 장례절차서비스, 임종전후 서비스

피스 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미국사회의 특성상 호스피스 환자가 집에서 임종을 맞을 경우 경찰이 관여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게 됨으로, 반드시 호스피스 케어 서비스를 받아 예기치 않게 발생할 번거로운 일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주자는 사회복지사는 장례준비 절차나 지역사회의 서비스연계, 기타 서류작성 등의 도움을 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 그 외에 원목 이은수 목사는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영적 서비스에 대해, 자원봉사자 지니 신은 호스피스 케어 자원 봉사활동 등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끝으로 박영심 대표는 “호스피스 케어 서비스는 환자에게는 고통없는 편안한 임종을 도와주고, 그 가족에게도 물질적 심리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서비스”라며 치료불가의 호스피스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꼭 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을 권유했다. 한편, 호스피스 케어 서비스는 메디케어, 메디칼, 개인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받는 동안에도 소셜혜택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에라 호스피스 케어 대표인 박영심 간호부장(213-700-6989)에게 하면 된다. 이영인 기자

“제3회 씨씨엠 루키 본선대회”

대상 장슬기, 금상 트레폴드 코드(트리오), 은상 에스라, 동상 정명훈



씨씨엠 루키 본선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모여 수상자들과 함께기쁨을 나누고 있다.

미주 한인 문화사역 단체인 원하트 미니스트리(대표 피터 박 목사)가 주최하는 제3회 씨씨엠 루키 본선대회가 지난 8월 29일 오렌지카운티 세리토스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본선 진출자는 총 8명이었으며, 대상 장슬기, 금상 트레폴드 코드(첼로, 피아노, 보컬), 은상 에스라, 동상(인기상) 정명훈에게 각각 돌아갔다. 심사위원으로는 아메리칸 아이

돌의 보컬 트레이너이자 저스틴 비버의 보컬 선생으로 유명한 데이브도 함께했는데, 참가자들의 수준 높은 실력과 열정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영인 기자

정신건강세미나

일시: 9월 24일(목) 오전 10-12시
장소: 미주평안교회
주제: 마음의 감기 우울증, 연령별사례와 대처법
주최: LA카운티정신건강국

비영리단체박람회

일시: 9월 19일(토) 오전 10-오후3시
장소: 굿사마리탄병원
주제: Love of Sharing
주최: 오픈청지기재단
후원: 오픈뱅크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해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다,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Gold Finger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전화주시면
출장 주문, 가봉
완성후 배달

Business hour 8:00am to 7:00pm
www.facebook.com/GoldFingerTailorLA

골드핑거

남녀맞춤, 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Byung Ho Kim (Kyung Sik)

- 법무부 직업훈련원 감독위원 역임
-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한국복장기술경영협회 상임 이사
- 한국아트패션 회장
- 90년 한국남성복기술경진대회 창작 최우수상
- 94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95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대림 리사운영 1979-2000

맞춤 양복 이래서 좋습니다.

한울한울, 장인의 혼을 담은 맞춤 양복, 고객의 마음까지 담은 맞춤양복, AS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교회 봉사 역할의 조화

로마서 12:1-12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당시 로마제국은 세계를 장악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부하고 강한 국가를 형성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 했었습니다. 그런 로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에 바울사도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영적인 소망에 애타는 권면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 영적예배: 사도바울의 애타는 권면

1절에 사도바울은 구원 얻은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하노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명령한다'는 것과 '호소한다'는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 단호한 명령과 애타는 호소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도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얼마나 기대 가운데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땅 위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목자들이 양떼를 두고 그 영혼이 기어코 천국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원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에 이렇게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애타는 마음으로 간청하는 부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청하는 명령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속죄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신의 죄로 대신 죽을 양을 준비하고 그 머리에 손을 얹어 자신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는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뽑아서 성막 휘장에 우슬초로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 제사를 드린 자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히 속죄 받을 때까지 임시로 용서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제물은 다 죽습니다. 구약시대의 제물은 양, 소, 염소, 비둘기까지도 다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끝나 버립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그 보혈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내 몸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즉, 죄가 용서된 후 성령을 파송해 주시어서 성령이 내게 인치시고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시는 과정에 내가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 육체의 남은 때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영적인 소망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삶입니다. 이 세상 조건에 빠져 얽매어 살지 말고 영적

인 소망과 그 성과를 목적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이는 헬라어로 '로기케'라는 말인데, 그 어원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활이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예배는 우리의 생활 모든 분야에서 내가 얻은 구원의 영적 소망의 신령한 기쁨을 주변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2. 성도의 삶의 자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2절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사는 자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락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확실하게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게 바뀌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 뜻을 분별하여 행할 때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도 더욱 깊어지실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접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대접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3-5절을 보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로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졌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을 이루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라고 함은 성령을 받아 구원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성령 받은 성도들만이 머리되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몸을 이루는 지체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직분을 받아 끼어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머리 되신 예수님과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부분은 죽어 있는 부분, 썩어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조직을 신중히 세워야 합니다. 모든 조직은 영적 예배를 위하여 교회가 이 시대적 사명을 받들고 영적 예배로 쓰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 조직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로만 조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3. 다양한 은사로 세워져 가는 교회

6-9절에 교회 구성원들은 제각기 받은 은사가 다르다고 합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하지만 그 각각의 은사는 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영적 기술과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을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하게도 하시고, 또 맡기신 양떼가 병이 나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목자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즉석에서 낫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영적체질신앙이 있어야 하지만, 또한 각자가 받은 은사는 다양해야 합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기도해 줘서 병 낫게도 해야 합니다.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로 교회가 조직을 이루게 되면 그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구령성과가 더 넘치는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11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즉, 같은 성령 받아 구원을 얻은 형제, 자매는 영적체질신앙으로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피차 간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분이 원하시는 성과를 위하여 이해하고 협동하는 일에 합심 전력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주되신 예수님의 소원을 더 잘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피차 자기 입장을 제쳐놓고 예수님의 입장을 따라 영적인 성과와 또 그 영광스

러운 결실의 소망을 목적으로 합심전력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란 중에 참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더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들은 더 대적하고 훼방하며 여러 모양으로 핍박하고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이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교회만 들락거릴 뿐이지 영적인 것에 대하여 전혀 소망 없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사탄 마귀가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가치도 모르고 소망도 없는 자이니 언제라도 사탄이 이용해서 교회 가운데 환란풍파를 일으킬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령 받은 사람은 원수마귀들로부터 중상모략과 행패와 핍박과 환란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 그것을 맞서 내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나와 함께하시는 성령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 기도 응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마주대하여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게로 향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주보고 사는 것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마주보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힘써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잘못 살았던 것이 생각나면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생각, 말,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영적 예배를 위한 생활이 되도록 새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헤어칼라 전문점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헤어칼라

\$30 up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00

매직스트레이트

\$100 up

프로페셔널 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칼라는 미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Tel: 213-739-1022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8:00 PM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 한함. * 헤어 컬러 발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유치부(Pre K-K)전도사 청빙

선한목자 장로교회는 LA 동부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사역하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다음과 같이 유치부(Pre-K)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하실 파트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 1. 지원자격**
(1) 신학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생
(2) 이중언어(한국어, 영어)가 가능하신 분
(3) 합법적인 미국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2.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신양간증 포함), 추천인 2명 기재요함
(관계, 연락처 포함 - 추천서는 소정의 서류 심사 후에 요청드립니다)
- 3. 주요사역 :** 주일 예배 및 주중모임(금요일 7:30pm) 인도와 기타 관련된 사역
- 4. 제출하실 곳 :** clarkjdsn@yahoo.com
(To, Pastor Clark Choi / 최 클락 목사-교육부 담당목사)
- 5. 제출마감 :** 2015년 8월 20일(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선한목자 장로교회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말의 다이어트



정우성 목사
남가주광명교회

요즘 우리 시대에 너무 음식을 많이 먹어서 성인병을 갖게 된다. 많이 먹으면서 체중을 조절하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으니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병이다. 오십도 되기 전에 당뇨, 고혈압, 심장 질환, 뇌졸중 등이 걸려서 이제라도 집에서 다이어트하려고 표어까지 만들어 붙여놓고 다짐을 하지만 말처럼 쉬운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그런지 요즘 건강상식프로그램이 인기다. 음식을 잘 골라 먹어야 오래 산다는 것이다.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이 찾아온다. 왜냐하면 먹은 대로 몸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몸의 다이어트 보다 더 시급한 것이 말의 다이어트라고 생각한다.

음식은 몸을 만들지만 언어는 우리 인생을 만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내가 한 말들이 지금의 내 인생을 만들었음을 인식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필히 말을 아끼고 점검해야 한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그 이유는 더 명백해진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표현하고 내 마음 먹은대로 소리낸다면 과연 참다운 인격자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가능할까?

말을 다이어트 한다는 말은 말을

잘 골라서 덕스럽게 하라는 말이다. 필자 자신도 목사로서 말을 조심스럽게 한다고 하긴 하지만, 어느 때는 자신도 모르게 말이 함부로 튀어나올 때가 있다. 순간 깜짝 놀라고 만다. “아...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사람이 무섭구나!”

부끄러운 자신을 솔직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한다. “주여 회개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십시오! 주여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주여 제 입술을 성령의 불로 짓어 주옵소서! 주여 평생 복된 말, 감사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 격려하는 말들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때문에 매 순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앞에 서게 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민 14:28)

하나님은 우리가 속삭이는 말, 마음에 있는 말, 밤에 남몰래 하는 말, 지하에서 하는 말, 화장실에서 하는 말, 자동차 안에서 하는 말, 가정에서 하는 말, 친구들끼리 하는 말 등 모두 아신다. 그리고 무익한 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마12:36)

자! 그렇다면 몸의 다이어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절실한 말의 다이어트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오늘부터!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나를 살리고 가정과 교회, 세상을 살리는 것이 나의 혀에 달려 있다. 축복과 사랑, 감사와 용서, 이해와 은총의 말을 하기로 매일 매 순간 선택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실천해보자. 저절로 웃어지고 행복이 전염되는 천국이 시작될 것이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엡 4:29). 말의 다이어트로 천국을 확장하는 우리가 되자.

더 망가져 버린 카메라



김성민 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얼마 전 카메라로 사진을 찍다가 눈을 대고 보는 작은 유리(Viewfinder)에 먼지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러 번 사진을 찍고 보니 다행히도 사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사진을 찍으려고 들여다보면 여기저기에 붙어 있는 크게 보이는 먼지들로 인하여 신경이 쓰였다. 맛있는 풍경이 그 먼지들 때문에 멋지게 보이지 않았다.

전문가에게 보냈어야 했지만 용기를 내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앞에 붙은 렌즈를 카메라에서 분리하고, 조심스럽게 먼지가 있는 곳을 찾아보았다. 먼지가 붙어 있는 곳으로 가까이까지는 2개의 작은 유리(Sensor)를 빼내야 했다. 그런데 인터넷을 보니 모두들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무 것으로나 닦으면 안 된다고 한다. 그 말을 기억하며 더욱 조심히 먼지 한 개의 센서를 빼내고, 두 번째 센서를 빼다가 그만 실수로 카메라를 작동시키고 말았다. 카메라 안에 나사들을 빼놓은 상태에서 기계가 움직인 것이다. 식은땀이 흘렀다. 많이 망가졌으리라 생각하면서 마지막 센서를 빼내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유리에는 크고 작은 먼지들이 붙어 있었고, 안타까운 것은

기계가 움직이면서 얇은 센서에 깊은 상처를 내고 말았다. 다시 조립해서 원상태로 만들어 놓았지만,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에 눈을 대면 이제는 먼지가 아니라 큼지막한 상처 3개가 자리를 잡고 시야를 가렸다. 아주 작고 얇은 유리였지만, 그 유리 센서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던 그 카메라로서의 더 이상 카메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풍경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났다. “내 아들이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잠언 7장 1-2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와 같이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살

아가리는 말씀이기도 하다. 바른 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없고, 세상을 바르게 판단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주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정욕에 싸여 있을수도 있고, 순결한 믿음을 간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눈으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갈 때에 방황하지 않고 꾀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수소문해서 새 부품을 어렵게 구입해서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눈과 같은 센서를 새 것으로 바꾸면 이전과 같이 아름다움을 마음껏 사진에 담을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떠한가? 혹시 많은 상처로 인하여 온전하지 않은 눈을 가지고 살지는 않는가? 잘 닦지 않아서 흐릿하지는 않는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바로 서서 주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어디 정상인 사람 없나요?



한천영 목사
갈릴리션교회

우리는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흘러오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경험한다.

우리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자주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한동안 아주 흥미롭고, 함께 하는 기쁨이 있으며, 서로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된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서서히 그의 약점과 단점을 발견하게 되고, 급기야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됩니다/존 오트버그 지음>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의 원래 영어 제목은 ‘Everybody’s Normal Till You Get to Know Them’이다. ‘당신이 그들을 알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정상이다’라는 의미이다.

재미있는 말이다. 이 말은 ‘당신이 그들을 알게 되면 모든 사람은 비정상이다’라는 말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을 조금 깊이 알게 되면... 나와는 너무나 다른, 어떤 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

을 알게 된다. 그러다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어느 날부터는 서서히 멀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

이 책이 말하는 바는, 그렇게 비정상적인 것이 사실은 정상이라고 말한다.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비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

죄인이라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죄인의 특징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범이며,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당연히 힘이 든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나도 비정상이라는 것이다. 내 주위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나 또한 죄인(비정상)이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회개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두 가지, 즉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나 또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비로소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된다.

신앙생활은 관계의 훈련이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더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모든 사람은 비정상적이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 34-35).

www.sellacare.com SEARCH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SELLA CARE®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면역력 강화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신비한 영양제 **M3® 세트**

유태인 코서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CGMP생산물

면역력이 곧 기적!
어떠한 병이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영양제

M3® 세트

- ✓ **100% Organic** (유기농)
- ✓ **Non-GMO** (유전자조작 無)
- ✓ **All Natural** (순수천연)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1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2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3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4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제품소개



M3

이 영양 보충제는 다양한 아미노산 결합 복합체입니다. 선진기술로 만들어진 이 제품 속에 포함된 무기질은 콩, 효모균, 보통 무기질 결합 복합체에 쓰이는 우유 단백질보다는 통쌀 농축물에 반응합니다. 셀라케어에 의해 사용된 특별한 쌀 농축물은 일반 쌀보다 아미노산 함량이 무려 7배가 높으며, 상당한 양의 공에서만 볼 수 있는 아미노산의 배열 단면을 가집니다.



VC 2000

이 제품의 특징은 캡슐로 되어 있으며 질 좋은 천연재료에서만 추출되는 바이오프라노노이드가 들어 있어 감기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가장 질 좋은 Rosehips와 Acerola에서 추출된 최상의 비타민 C입니다.



ME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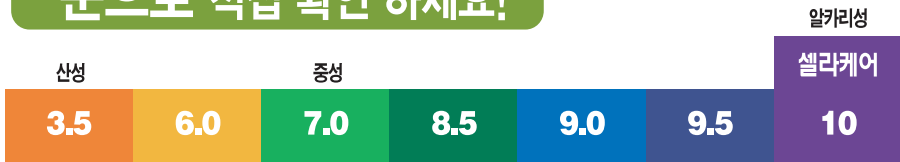
우리 몸의 가장 풍부한 무기물, 칼슘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의 99% 이상의 칼슘이 우리 몸의 구조를 지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뼈와 치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남은 1%는 체내 혈액, 근육, 세포 내 체액 속에 있습니다. 칼슘은 근육의 수축, 혈관 수축과 팽창, 호르몬과 효소의 분비, 신경계의 전달기능에 필요합니다. 칼슘의 생리학적 기능은 칼슘 섭취량이 불충분할 때 정상적인 혈액 내 칼슘 함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뼈의 염분을 제거하는 등 우리 인체의 생존에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식이요법을 통한 칼슘의 섭취는 건강한 골격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GOLDEN WATER

이 제품에 함유된 비타민 E는 베타d, 감마 d와 같은 면역관련 물질들이 혼합된 토코페롤과 100% 천연의 에스테르화되지 않은 알파토코페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본사(LA)	213.435.9600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플러튼 홈쇼핑	714.496.7887	토렌스	213.268.0844
시온약국	213.344.9730	LA별몬 마틴약국	213.382.9718	에나하임	714.469.5809	뉴욕,뉴저지	201.983.8333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별몬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얼바인	949.330.9009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시카고 알바니아약국	847.699.1511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224.406.0337
에스약국	323.733.7788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오렌지카운티	213.247.2244	놀워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 다운타운	213.798.3333	부에나팍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파이오니아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플로리다/NC/SC	770.457.1717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213.739.3030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캐나다	604.872.1669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LA내처영양센터	213.739.8874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로렌하이츠	626.912.5727		
다운타운 산페드로	213.765.9677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토렌스 한남체인(건강마을)	310.619.7758		

씨에라리온

김성림 선교사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시71:20)



잊혀진 에볼라 고통위에 임하는 교회부흥(상)

에볼라가 활취고 간 아픔의 자리, 그 곳에서 그들은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찬양하기 시작했다. 교회에 부흥이 임한 것이다.

로, 시신을 집에 숨긴 일도 이들에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먼저 사람이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에볼라 감염 검사를 받아야 했다. 물론 가족들은 당연히 함께 예비 보균자로 분리되어 일체의 사회 활동을 할 수 없고 격리가 이루어졌다. 그 환자가 보균자로 확진이 되면 반경 1킬로미터정도 되는 마을은 모두 감히게 된다. 마을 주변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군인들이 24시간 상주하며 감시에 들어간다. 환자가 발생한 집의 모든 집기들은 소독을 하거나 불살라 없어진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몇 가지 되지 않는 살림살이가 모두 불길에 휩싸이고 마는 것이다. 그 누구도 반항할 수 없고 따지는 사람들도 없다.

환자가 많이 발생한 시기에는 환자가 죽으면 바로 묻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이 죽으면 무조건 숨기기 시작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지막 가는 길을 혼자 외로이 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에볼라가 가장 심각한 시기에는, 많은 사망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관계 당국이, 굴착기로 땅을 파고 포크레인으로 사망자들을 땅속에 그냥 묻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족은 아무도 참관할 수 없었고 설령 경찰에게 돈을 주어도 멀리서만 그저 지켜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은 시신을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기 위해 시신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기나긴 내전을 겪고 이제 겨우 안정을 찾은 이들에게는 내전과도 같은 고통이 엄습했다. 자신의 가족

이 어디에 묻힌지도 모르고 정부로부터 그저 죽었다는 통보를 받는 것이 전부였다. 혹 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무지하여 그렇게 했을 것이라 여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며 동일하게 남편을, 아내를, 그리고 자식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함께 삶을 나누는 가족을 그렇게 보낼 수는 없었던 것이다. 열이 나도 다른 곳이 아파도 병원을 가기 두려워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도 많다고 한다.

혹 주변 사람들이 신고하여 병원에 가도 에볼라 검사를 받는 데만 5-7일이 걸렸다. 갑자기 들이닥친 이 바이러스를 검사할 시약이 없었기 때문이다.

유엔에서 지원하는 약품이 오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것이 다시 환자들에게 활용되는데 또한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 세계 각국에서 책상에 앉아 회의할 때 이들은 외로이 병실에서, 복도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어두운 집에서 외롭게 죽어갔다.

초기에 정부에서 '에볼라'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하지만 정부는 '에볼라'를 숨기기에 급급했고, 그 후 통제가 불가능할 때 비로소 이 무서운 질병을 알렸다고 한다.

더욱이 지방에서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고, 그들이 치료를 위해 도시로 들어와 씨에라리온의 수도권 '프리타운'은 무방비 상태로 에볼라에 의해 강타 당한 것이다.

보균자와 그를 치료한 가족, '에볼라'라는 사실을 모르고 문병을 다녀간 자, 그리고 그 가족과 친구들 인구의 1/4이 살고 있는 도시는 인구의 밀집 현상으로 걷잡을 수 없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갔다. 말라리아와 비슷한 증상을 보였기에 이들은 그저 가벼운 감기정도로 가볍게 여긴 것이 분명하다. 아무도 이 '에볼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경찰이 보균자를 잡아 가둔다는 소문이 돌아 다시 환자들은 지방으로 달아났다. 이렇게 반복된 정부와 보균자들 간의 추격전이 온 나라가 '에볼라' 감염지역이 되는 비극을 만든 것이다. 마을을 지날 때마다 검사를 받아야 했고 경찰서의 허가증이 있어야 하며 한 명이라도 환자가 발생한 마을은 모든 것이 통제되었다. 마을로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어 생필품이 바닥하면 돌보지 못한 아이들은 굶주림으로 사망했다. 또 극심한 가난으로 몸을 파는 어린 아이들도 생겨났다.

지금 이 땅은 '에볼라'로 인해 경제가 적어도 10년은 뒤쳐진 상태라고 한다. 아직도 식량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막혔던 국경이 열리고 생필품들이 원활하게 공급되어 다시 예전과 같은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은 애를 쓰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부정 부패가 만연하여 유엔이나 세계 각국에서 지원된 자원들이 많이 없어졌다 는 소식도 들린다.

아픈 자들을 위해 보낸 구호품들이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았다. 모든 국민이 죽음과 싸우고 있을 때에도 부정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고 있었던 것이다. 인간이 주는 안식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은 그들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해답이 이곳에 와 보니 알 것 같다.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며 찬양하기 시작했다. 우리 지교회들도 '에볼라'로 인해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그 고통을 딛고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고난이 있는 곳에 은혜도 크다는 말씀이 실체가 되었다. 더 큰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그들에게 위로와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계신 것이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 세상의 어둠은 물리갈 생각을 하지 않고 막막함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주님과 함께 괴로워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가 지쳐 쓰러져 눈물 흘릴 때에는 주님도 같이 울고 계심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의 삶에서 말없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결코 끊어지지 않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의 시련을 이기게 하신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다. 그 고통에도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의미있는 일이었다.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하늘에서 주시는 평강이 아닐까 생각한다. 긴 터널을 통과하고 밝은 빛을 볼 때 그곳에 주님이 서계실 것을 믿는다. <계속>

정리 이영인 기자

웹사이트: jesusmission7.org
이메일: goafrica7@gmail.com



2014년 1월에 씨에라리온 칼라훈 국경에서 시작된 '에볼라 바이러스'는 아직도 이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운 존재로 삶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단 한 명의 발병자로 인하여 씨에라리온, 기니, 라이베리아는 지난 2년 동안 수천명이 죽어갔고, 수만 명이 고통을 받고 있다.

왜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아프리카에 이같은 큰 고통이 주어졌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저 말라리아처럼 가볍게 생각한 바이러스는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모든 뉴스의 초점이 되었던 때도 있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서 잊혀진 먼 나라의 이야기지만 아직 이곳은 그 바이러스와 전쟁 중이다.

그동안 긴 어둠의 터널을 나온 이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우리가 다시 이 땅을 밟으니 너무나도 큰 환대와 환영을 받았다.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 이들에게는 그저 고통의 따스한 모양이다. 아직도 많은 선교사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가장 '에볼라'가 심각했던 7월부터 이들에게는 생지옥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보도상으

2015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기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상담학
석사: 신학/목회학/상담학
박사: 신학/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1-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징: Sevis 1-20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길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1-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진 박사, 이사장: 김광민 목사
1818 S. Western Ave. Suit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us aeumaster@gmail.com

“교회를 떠나기 전에”

세인 아이들만 목사... 5가지 질문 먼저 해봐야

[1면으로부터 계속] 1. 교회 내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성경의 무오성과 권위를 인정하는가?

만약 목회자들, 교사들,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할 경우, 반드시 이러한 지도자들을 경계해야 한다. 이는 비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지닌 것이 아닌,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고려하지 않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예레미야 23장을 보면, 백성을 멸망으로 이끄는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

목회자의 연구나 가르침이 더 이상 하나님의 생각을 반영하지 않고 있거나, 교회가 율법주의와 타협에 의존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기도해야 할 문제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가르침은 영적 성장에 필수적이며, 율법주의와 타협은 교회의 영적 생명을 매마르게 한다.

만약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견고하지 않다면,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된다.

2. 하나님의 영이 진정 당신이 교회를 떠나도록 이끄시는가?

시편 32편 8절은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신다.

만약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거나, 성경 공부 재미없거나, 교회가 시시하게 보이거나, 교회 안에 율법주의와 정죄가 자리하고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역효과 있는 것일 수 있다. 성령께서 내면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으면 더 많은 변화가 외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성령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선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일 또는 저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하면서도 이를 무시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매우 부족한 결정을 내렸음을 발견하게 된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성령이 아닌 인간의 본성, 교만, 감정들에 이끌린 것이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도 결혼, 이사, 교회를 떠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나는 종의 마음이 없고,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겸손함을 갖지 않은 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깜짝 놀랐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도하신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

3. 교회를 떠나기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사회적인 결과를 낳는다. 누군가 교회를 떠날 때, 우정이 끝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새 신자나 다른 이들이 실족하거나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 이들이 누구에게 물어 보느냐에 따라, 안 좋은 소문이 나서 교회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내가 교회를 떠날 때,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가능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세인 아이들만 목사 ©크리스천포스트

협담이나 비난의 말 대신 좋은 말을 남기는 것이 좋다.

도전을 받는 상황 속에서 이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알리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성은 다른 이들을 끌어내리고 싶어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좀 더 나아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입을 조심해야 한다. 독선은 설 곳이 없다. 그러나 교회 내의 부패나 속임수를 감추려는 뜻은 아니다. 여기서 지혜가 필요하다.

4. 교회를 떠나기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남편의 행동이 가정의 안정을 결정한다. 만약 회사가 망한다면, 회장이 책임을 진다. 팀이 실패하면, 코치가 책임을 진다. 가족의 영적인 건강이 악화되면, 아버지의 책임이다.

당연히 가정의 실패를 경험한 남편들 중에 자신의 책임이 아닌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영적 지도력은 매우 필요하다. 미국은 이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성경공부와 교회 출석, 기도를 권유하는 경우는 아니다. 남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잇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과 가족의 영적 성장과 건강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투자는 없다.

만약 가정이 교회 내에서 성장하지 않거나 교회가 최고의 환경으로 보이지 않을 경우, 아버지(부모)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부분적으로 나의 잘못인가? 집에서 내가 어떤 모델이 되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교회가 가족의 영적 건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5. 소비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진 않은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그냥 교회가 지겹다”이다. 때로는 이러한 말이 교회를 떠나는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더욱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음식을 먹고도 자라지 않는데 다른 이들은 잘 자란다면, 음식이나 음식을 만든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볼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혹은 교회에서도 전을 받지 못해 교회를 떠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소비적인’ 사고방식이 ‘중’의 사고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강해진 기자

교회, 믿는 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버림중학교 / 토요일엔 - 17와 버먼트 코너
주중새벽 -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2세대가 되며, 선교영광을 추구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 (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박성도 담임목사

LA 선교교회
내 지경을 넓히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사명으로 하나님께, 소망중에 기뻐하라

927 S Bonnie Brae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910-95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배 오전 6:20

한현영 담임목사

갈릴리션교회
함께 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 목, 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한기형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11:00 EM 오후 1:0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p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화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김경렬 담임목사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00 목요일(양)예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s.us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0:30 토요일 오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신현호 담임목사

새하늘 교회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500-3721 / www.NewHeavenChurch.com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9: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월서와 월튼 옆) T. (213)380-0071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7-1700 / T. (313)500-4737 / olympic-church.org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령 (정부 배네티트 전환)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신부 메디칼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요한 선교교회
gkal44@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효롭, 소.친.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인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Healing), 기르(ri)Maturing), 맞선(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김범수 치과 Bryan Kim D.M.D.
General & Cosmetic Dentistry

김범수 치과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대통령 되면 전통결혼 회복” 서약

美 공화 대선후보 4명... 켈 부시와 스콧 워커 등은 불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릭 샌터텀 전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원,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주지사, 신경외과 전문의 출신의 보수 논객 벤 카슨 등, 공화당 대선 후보 4명이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각) “대통령이 되면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뒤집고 전통결혼을 회복하겠다”고 서약했다.

그러나 켈 부시 전 플로리다주지사나 스콧 워커 위스콘신주지사 등 공화당 핵심 대선 후보들은 서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동성결혼 반대운동을 펼치던 ‘전국 결혼협회’(National Organization for Marriage)는 이날 17명의 공화당 대선 후보들 가운데 4명이 자신들이 주관한 서약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서약은 “대통령이 되면 합법적 결혼을 회복하기 위해 구체적 행동을 하고, 전통적 결혼을 찬성하는 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

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지난 6월 26일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헌법에 입각한 결혼의 의미를 구현할 판사를 지명하는 한편,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한 동성애자의 권리 정책을 재검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결혼이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고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차별 또는 혐박을 받은 사례를 조사·공표하도록 법무부에 지시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 단체의 브라이언 브라운 회장은 성명에서 “대통령 선택에 있어서 누가 결혼의 진정한 옹호자인지는 중요한 기준”이라면서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연방대법원의 터무니 없고 정당성 없는 결정을 뒤집기 위해, 전통결혼을 지지하는 대통령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종교동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윙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church.org

김성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주일학교-주일오전 10:30
 영아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F.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대리청년부예배 오후 12:5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4부예배 오후 12:5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 sunhanchurch.com

고송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박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토)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이춘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청년교회 사랑의 나눔(매주 토) 오전10:00-11:00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최승묵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시(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본성전) 매일 O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 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베이 지역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전 11:00
 다문화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중, 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준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이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아/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장어우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11:30
 EM예배 오전 10:00(장년)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오후 2:00(장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예배 오후 3:00(장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토)
 오후 1:00

글렌데일 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정영희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EM1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2부예배 오전 11:00

드림교회
 "주의 꿈을 품고 세상의 빛으로"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교사예배(주일) 오전 9:45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영성예배 - 저녁 7:45 목요일영성예배 - 저녁 7:45
 유초등부(주일) 오전 11:00 구역모임 매월 1회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한글학교(토) 오전 10:30

벤추라 카운티 장로교회
 '예수의 심장으로 섬기는 교회' (월/1:8)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T. (805) 483-7009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8: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최혁 담임목사

밸리채플 Valley Chapel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비전채플 Vision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주일예배 - 오전 9:30 / 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금요영성예배 - 저녁 7:45 목요일영성예배 - 저녁 7:45 12631 E. Imperial Hwy. #F134
 13808 Imperial Hwy.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최호년 담임목사**
 스테인예배 오전 10:00 오후 6:30(토) 주일예배 - 오전 9:30 / 11:30
 한국어 오전 10시(필로우십)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목요일예배 - 저녁 7:45
 오후 12:00(본당)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신/교에 앞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프란치스코 교황 ©commons.wikipedia.org

美 가톨릭 교인들 ‘동성결혼’ Yes

일반 성인보다 지지를 높아... 동성결혼 60%, 낙태 51%가 찬성

미국 가톨릭 교인들이 교회 가르침에 도 불구하고 동성결혼과 낙태를 지지하는 비율이 일반 성인들과 높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27일 공공종교조사연구소(PRI)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가톨릭 교인들의 60%가 동성결혼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조사는 게이와 레즈비언 커플에게 결혼할 법적 권리가 주어질지 여부를 물었다. 일반 미국 성인들의 경우 55%만이 찬성했다. 또한, 낙태를 합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5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일반 미국 성인들은 53%가 같은 대답을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5일부터 11일까지 1,331명의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 가운데 22%가 가톨릭 교인이었다. 가톨릭 교인 중 59%는 백인 비히스패닉이었으며, 34%는 히스패닉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미국 가톨릭 교인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결혼에 대해 갖고 있는 입장에 대해 혼돈스러워 하고 있다는 점 역시 드러났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동성결혼과 낙태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은 전통적인 교회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밝혀

“변영신학은 현대판 바알신앙”

美 남침례회... 변영신학 반대 공식 천명해

미국 최대 개신교단인 남침례회(SBC)가 변영신학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SBC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 러셀 무어 위원장은 1일 크리스천포스트에 "SBC는 변영신학에 대해 처음부터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변영신학은 기독교의 또다른 하나의 형태가 아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다. 변영신학은 오히려 현대판 가나안 다산 이교(바알신앙)"라고 비판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영신학과 대척점에 있다"면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였다.

변영신학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건강과 물질 축복을 특히 강조하는 신학적 입장이다. 또 헌금을 많이 하면 더 큰 건강과 물질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해 비판을 받기도 한다.

월드체인저스교회 크레플로 달러 목사는 세계 선교 명목으로 6,500만 달러 짜리 초호화 전도 전용기를 마련하기 위해 20만 명에게 각각 300달러(약 33만 원)씩의 헌금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 최근에는 뉴스쇼인 "Last Week Tonight with John Oliver"에 보도되기도 했었다.

해당 동영상은 현재 유튜브에 올라와 60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화제와 논란이 되고 있다.

무어 위원장은 그러나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는 변영신학을 거부해왔다"면서 "달러 목사의 변영신학은 사악한 마술과 같고 약자들에 대한 착취"라고 비판했다. 또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세속적인 연예인들 같다고 덧붙였다.

무어 위원장은 아울러 고교리대출에 대해서 "약자들을 착취하는 약육강식의 전형"이라며 비판했다.

“동성결혼·낙태 반대 목소리”

사우스캐롤라이나...1만여 명 참석 대규모 집회 열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콜롬비아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난 8월 30일 열린 동성결혼과 낙태 등에 반대하는 집회 "스탠드 위드 갓, 프로 패밀리 랠리(Stand with God, Pro-Family Rally)"에 1만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참가했다.

이 집회에는 공화당 대선후보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주)과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는 물론 다수의 상원의원들도 참가해 신앙과 도덕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크루즈 상원의원은 "우리는 국회의사당 계단에 모여 있는데 주일이잖아"면서 "미국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에는 부흥의 영이 휩쓸고 있고 미국도 휩쓸고 있다. 미국인들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낙태 태아 장기 거래 동영상 공개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족계획 연맹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설교단에, 회중들에게 생명의 대해 전할 것을 요청해야 하며 투표를 보여줘야 한다. 가족계획연맹에 대한 재정 지원 철폐를 위해

싸우자"고 말했다. 닉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는 종교자유에 대해 강조하면서 "신앙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통제되지 않는 정부 때문에 교회와 종교사학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 세대 동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른 잘못된 것들이 가르쳐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격까지 당하고 있다"며 "미국의 건국정신이 공격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위해, 자유를 위해, 미국의 건국 정신인 성경적 가치를 위해 일어나자.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자"고 촉구했다.

집회 주최 측에서는 미국 시민들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미국의 50개 주가 가진 주권에 대한 공격"이라며 "우리는 동성결혼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복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집회의 목적은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 기독교인 (사진출처: 빌리그래함전도협회)

“인도 오리사 박해 7주년”

핍박 이전보다 더욱 더 강해져가는 신앙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6,000여 개의 교회가 파괴되고 10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했던 ‘인도 오리사 박해’ 사건이 일어난 지 7년이 지났다.

이런 가운데 오리사주의 한 주교는 오리사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핍박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고 밝혔다.

쿠타크-부바네스와르의 주교인 존 바르와 신부는 피데스 뉴스에 “기독교인들이 함께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모두 함께 평화와 정의, 희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리사주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핍박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고 말했다.

바르와 신부는 가톨릭 월드 뉴스에서도 “끔찍한 폭력을 경험했지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서 강해졌다”고 전했다. 바르와 신부는 또 위협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기를 거부했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도 전했다.

바르와 신부는 “핍박 후 이곳 저곳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났는데, ‘우리 집이 파괴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괴됐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지난 2008년 8월 31일에 일어난 인도 오리사 박해로 300여 개의 교회와 6,000여 개의 가정이 파괴됐으며, 5만 6,000명의 기독교인들이 풀지에 집을 잃고 흩날아가 됐다.

또 최소 1명 이상의 수녀를 포함해 다수의 기독교 여성들이 강간을 당했다.

이들 힌두교 폭도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인도인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인도에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는 ‘달리트’, 또는 ‘불가촉천민’으로 알려진 인도 카스트제도 최하위 계층의 힌두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인도에서 달리트들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자신들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는 인도 선교에 좋은 전략적 접촉점이 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폭동에 가담한 힌두교인들 27명이 체포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2명만 법의 심판을 받았다.

“보코하람”

나이지리아 교인 8천명 살해·교회 파괴

나이지리아의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이 약 8천 명의 교인들을 살해하고 교회를 파괴했다.

프레드렌교회와 새뮤얼 달리 목사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다마와, 요베, 보르노주에 소재한 우리 교회의 70% 가량이 보코하람에 의해 파괴됐다. 또한 교인 8천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다. 치북에서 납치된 176명의 여학생들도 우리 교인들”이라고 말했다.

달리 목사는 “나이지리아군이 결국 테러 집단을 몰아낼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아다마와, 요베, 보르노주의 많은 교회들이 이미 침략을 받아 파괴됐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수많은 교회가 파괴되고, 많은 교인들이 살해당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밑에 있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실직하게 됐다고 전했다.

보코하람 대원들은 나이지리아 북동 지역에서 정부군과 대치하는 한편, 마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수백 명의 주민들을 살해했을 뿐 아니라, 여성과 아이들까지 납치했다. 최근에는 나이지리아 북동부 요베주 내의 쿠쿠와-가리 마을을 공격해,

최소한 150명의 주민들을 살해했다. 이와 관련, 나이지리아의 부하리 대통령은 12월까지 보코하람 세력을 쫓아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페미 아데시나 언론 담당 특별보좌관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보코하람이 일으킨 반란의 끝이 목전에 다가왔다”면서 “대통령은 올해 12월을 보코하람 척결을 위한 테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에 18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를 12월로 변경했다. 총사령관으로서 그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부하리 대통령을 만나, 나이지리아군에 약 500만 달러(약 59억 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당시 오바마는 부하리 대통령에 대해 “매우 진실하며, 보코하람 극단주의자의 척결을 위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칭찬했다.

세계기독교연맹(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과 같은 박해감시단체는 보코하람을 ‘죽음의 송배자’로 표현하며,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이를 척결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강혜진 기자

“IS, 사람 산 채로 불태워 죽여”

충격적이고 끔찍한 동영상 공개해 비난 거세질듯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이슬람국가)가 지난 8월 31일(현지시각) 사람을 산 채로 불태워 죽이는 충격적이고 끔찍한 동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IS에 의한 이번 화형은 IS 대원들이 IS 격퇴전에 참여한 이들에 의해 화형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뤄졌다.

영국 일간 데일리스타(The Daily Star)는 이 동영상이 이날 오전 IS 선전 조직을 통해 IS와 연결된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동영상에서 시아파 무슬림으로 추정되는 네 명의 남성은 팔과 다리가 묶인 채 배와 얼굴이 땅을 향하도록 공중에 매달려 있고, 아래에서는 불이 피어오르고 있다.

IS에 맞서 싸우는 군인들로 추정되는 이들은, IS에 의해 포로로 잡힌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IS가 그동안 처형했던 인질들과 똑같은 색깔의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고 있다.

동영상에서 이들 네 명은 각각 카메라를 바라보며 자신을 소개하고, IS 격퇴전에서 자신들이 맡았던 임무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이어 이들 네 명은 IS 격퇴전에 참여한 이들이 IS 대원들을 산 채로 불태워 죽이는 동영상을 시청할 것을 강요당하는데, 잠시 후에 자신들도 동일한 일을 당한다.

특히 동영상에서는 화염이 네 명의 몸에 닿는 모습을 느린 화면으로 보여 준다. 동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들이 죽기 전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담겼다. IS의 야만적인 처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혜리 기자

O.C./앨버틴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모교실, 아바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9:00pm
(2부) 11:30am 금요일전야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더불어) 7:00am
화요일기도회 7:00pm 토요일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받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후 2:3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2: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2:3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가득 예배 : 매일 4배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생예배 오후 2:30

남가주 벨엘 교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교회
18523 Arline Ave., Artesia, CA 90701
T. (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헤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bl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일 오전 6:00 분당 **허귀남 담임목사**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놀워한인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11:00am 금요찬양예배 7:3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8:30 주일학교 오전 10:30 **고현중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요일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영아예배(GLMC) 주일오후 12:30 **박일룡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수요일저녁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오전 6:00

로렘장로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교회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T. (714) 956-7640 / (714) 956-5845 / WWW.RORHTEM.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새벽 5: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김현오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새벽기도회 새벽 6:00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새벽예배 : 5:30 AM (화-금)
11:45 AM Adult Service 6:30 AM (토)
1:30 PM English Service
금요일모임 : 7:20 PM(성경 66권책별성경공부)

이승필 담임목사

새로운 교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과 기쁨을 나누고 온전하신 분이 무궁하시니
12432 9th. St., Garden Grove, CA 92844
Mobile: (949) 933-7242
Saerounchurch@gmail.com

성경적 목회 신학대학교 학장 **정승통** 박사 회장 **주혁목** 목사
성경적 목회 교육원 원장 **라세원** 목사
사무간사 **홍지윤** 전도사

성경적목회연합회
“성경적 목회에 뜻을 두신 목회자께서는 누구든지 문의 바랍니다.”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el. (562) 896-9191, (714) 252-9191

1부예배 오전 9:00 P-lander(Korean) 오전 11:00 **이동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 (1-5) 오전 11:0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앨버틴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홍성준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장년부 오후 1:30

앨버틴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니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민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장년부 오후 2:00

앨버틴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예배 오후 12:30 **김용철 담임목사**
교육부예배 오후 12:30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교수

앨버틴중앙교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1842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714)309-7551
Pastoryckim@yahoo.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일 오전 06:00
목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 11:50 **김민재 담임목사**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5(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1부예배 오전8:15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엄영민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 주일 오전6:0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9: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일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은교회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새벽기도 :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성경이 예배 :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 : 월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아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 info@Pottersc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조원재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8:00

하나님의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33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

HQ구연산은 도매가 이하로 고객 직판을 하기 때문에 건강식품점이나 마켓에서는 구입하실 수 없으므로 타사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구연산을 드실 때 신맛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저희 미네랄 건강소금을 함께 타서 드시게 되면 에너지 드링크가 되어 건강에도 좋고 먹기에도 편리합니다.

HQ구연산의 효과에 대한 명성은 3백만병 판매 대박 히트상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첫 출시보다 두 배나 더 되는 양으로 고객님들을 모시다보니 더 이상의 보너스를 드리기에 많은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낼 만큼 고객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와 실험 그리고 임상을 거쳐 100% 천연 물질로 각종 암과 난치병, 그리고 아토피와 더불어 면역 결핍으로 야기되는 각종 질병들을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인 미라팜-22가 출시되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성의를 다해 준비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p>알파3병 + 오리지널7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100 No Tax</p>	<p>오리지널10병 + 미네랄 화색 소금2봉지(2LB) = \$460 \$100 No Tax</p>	<p>알파6병 + 오리지널2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100 No Tax</p>
--	--	--



한 병은 2-3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추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뿐해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똑똑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니움.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린스처럼 사용했다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유리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가장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옴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니 6개월 후 얼굴색이 젊어졌음.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를 후 증상이 사라짐.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경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만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인과도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주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목을 먹는 꼴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약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 이부경박사 현, 건강과학연구원장, 청주교육대학 대우 교수,
[주요 저서]: <노벨상감의 건강박사>(당뇨병 치료법)외 다수.
[상훈]: 녹조근정훈장, 철탑산업훈장, 녹조근정포장 등 수여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

HQ헬스 / HQ산삼 / HQ 바이오텍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세리토스 직영점

새문안교회, 공사 현장서 기공 감사예배

새 성전 짓는 '모교회' ... "또 하나의 건물 되지 않길"



새문안교회 새 성전 공사 현장에서 기공 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새문안교회(담임 이수영 목사) 새 성전 기공 감사예배가 지난 8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공사 현장에서 교인들과 내빈들 약 1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새문안교회는 지난 2007년 9월 건축위원회(위원장 이덕실 장로)를 구성했고, 2010년 새 성전 설계를 마친 뒤 지난해 11월 기존 예배당을 철거했다.

이어 최근 시공사를 선정한 뒤 이날 기공에 이르렀다. 완공은 오는 2017년 12월 새 성전은 연면적 29,352.83㎡(약 8,900평), 지상 13층 지하 5층(분당 2,500석) 규모다. 현재 교인들은 인근 교육관 등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수영 목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새 성전 건축을 결의하면서, 이

것이 그저 또 하나의 교회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기를 원했다"며 "누가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을 짓고자 했다"고 했다.

이어 "또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광화문 일대를 지나는 모든 이들이 필요할 때 들어와 편히 쉴 수 있는, 시민 모두의 교회가 되길 원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심장부에 세워지는 교회이기에 아름답게 지어, 지나는 사람들이 감탄하고 더불어 종로구와 서울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세우길 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목사는 "이제는 삼을 뜯 준비가 되어 오늘 이렇게 모였다. 이 자리를 빛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하나님께 영광

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김장근 목사(예장 통합 서울노회장)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의 백성들 역시 거룩하길 원하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새 성전을 짓는 새문안교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거룩함"이라며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간다면 한국교회는 달라질 것이다. 새문안교회가 한국의 첫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배 후에는 건축 경과보고, 설계자와 감리자 및 시공사 소개, 기공을 위한 합심기도, 시삽이 이어졌다.

김진영 기자

"교회언론회"

역사 교육...국정교과서로 바로잡아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1일 "역사교과서, 국가 정체성을 바로잡는 국정교과서로 가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2018년부터 고등학교에서는 '통합사회'(지리, 일반사회, 윤리, 역사)와 '통합과학'(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도입된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가 이달 말쯤 '국/검정 교과서 고시'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특히 역사교과서에 대한 '국정 고시' 발표는 상당히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역사 교과서를 국정 체제로 유지해 오다가 참여정부 때인 2007년부터 검/인정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는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한다는 취지였으나, 이념적 대립을 자초하는 빌미를 주고 말았다"고 했다.

언론회는 "역사교과서는 특정의 이념이나 학파의 모든 주장을 들어야 하는, 한가(閑暇)한 장(場)이 아니"라면서 "역사 교육이란 학생들로 하여금 사실에 입각한 역사를 배우고 또한 해석하는 능력을 익히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 교육의 중요성은 자라나는 세대의 가치관과 세계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그런가하면 국사 교육은 국가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또한 불문가지의 일"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그렇다면 현재처럼 민간이 주도하여 만들어진 검정체제 속에서 이런 문제점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그야말로 제대로 된 교과서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은 뒤, "다양한 의견 제시는 가능하겠으나, 피교육자 입장에서는 혼란만 경험하게 되므로, 결국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우리나라의 역사 교과서의 정경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오(正誤)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소위 사관(史觀)의 문제가 매우 크다"며 "더구나 북한이 국사 교육처럼 김일성 왕가 중심의 왜곡, 날조되고 뒤튼린 역사 교육은, 통일 후에 선결되어야 할, 사상적 문제점과 함께 심각한 과제가 될 것이 분명하듯이, 우리나라의 국사 교육 교과서 문제가 올바르게 되어지지 못한다면, 이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언론회는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올바른 역사 교육에 근거가 되어야 할 교과서, '주의/주장'의 선전장이나, '학파의 결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일부가 주장하는 편향적인 학술들을 배제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교육하는 올바른 국정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일에 실수함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교회에 '교회본질' 묻다

기장총회 '제100회 총회 기념문서 발표예정'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총회장 황용대 목사)가 오는 9월 개최되는 제100회 총회를 통해 한국교회 현실을 냉혹하게 비판하며 교회의 본질을 지적하는 '제7문서'인 '제100회 총회 기념문서:교회를 교회답게'를 천명한다.

기장은 1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제100회 총회 안내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회에서 다룰 주요 현안들을 소개하며 특히 기장이 시대에 대응하며 발표해온 교단 문서의 연장선상에서 제7문서인 '제100회 총회 기념문서'가 채택되도록 헌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배대진 목사(기장 총무)는 제7문서와 관련, "우리 교단은 선교 상황의 변화에 대응해 교단의 선교방향을 제시하는 문서를 발표해 왔다"며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교회 역시 이전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던 교회는 존립을 걱정하고 있다. 교회를 향한 시선 역시 무섭도록 차가워지고 있기에, 교회의 모습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천명해 선교의 새로운 변형점을 만들어야 할 시기"라며 제7문서를 발표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설명했다.

기장은 1953년에는 신앙과 신학의 자유를 천명한 '호헌선언서'를 1970년대는 '하나님의 선교'를 기초로 한 '4대문서' 곧 '교회 교육정책과 지침서'·'사회선언지침서'·'신앙고백서'·'선교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1980년대는 정의·평화·참조질서의 보전·사랑 등을 담은 '제5문서'를 1995년에는 한반도의 분단 극복과 평화통일과 연결해 '희년문서'를 발표했었다.

제100회 총회에서 헌의될 제7문서 '제100회 총회문서'는 먼저 비판받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과 자화상을 거론하고 있다. 제7문서는 "최근에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많은 비판과 지탄을 받고 있고, 교회는 영적·도덕적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다수 교회 때문이든 소수 교회 때문이든 비판과 신뢰상실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엄중한 현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회의 위임을 담아 제100회 총회에 이 문서를 내놓는다"며 "이 문서는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나서기 위한 '자기 부인'의 문서이며, 교회의 일그러진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대용 기자

이동윤 기자

한동대, 대학구조개혁평가 최상위 등급 받아

정원 자율 조정 가능... 지방 소규모 사립대의 A등급 의미 커

교육부가 지난 8월 31일 발표한 대학 구조 개혁 평가 결과에서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홍 박사)가 최상위인 A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동대는 강제적 정원 감축없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한동대 측은 "지방의 소규모 사립대학인 한동대의 A등급 획득은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평가는 학생연구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 대학을 대상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진행됐다.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은 A등급, 90점 이상 B등급, 80점 미만은 C등급, 70점 이상 D등급, 70점 미만 E등급으로 각각 구분했다. 평가 결과는 A등급 34개교, B등급 56개교, C등급 36개교, D등급 26개

교, E등급 6개교, 별도조치 5개교 등으로 나왔다.

이번 평가에서 한동대는 교육 여건, 학사 관리, 학생 지원, 교육 성과 등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동대 측은 "이는 그동안 지속 추진해 온 교육 특성화 정책의 결과"라며 "실제 한동대는 지속적 전임교원 충원과 첨단 강의실 확충 등 인프라 개선과 창의융합 교육 수행 등 내실화 추구로 교육의 질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동대의 엄격하고 체계적인 학사 관리는 대학 사회에서 유명하다고 한다.

한동대는 또 NFC 기반의 스마트 캠퍼스 구축으로 출석·지각·결석 등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정확하다. 이러한 체계적 학사관리 결과 한동대 학생들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관 대학생 핵심역량진단평가(K-CESA)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기초교육원에서 수행한 '학부교육의 질과 성과 분석'에서도 다른 대학에 비해 학업 도전, 지적활동, 능동적·협동적 학습 영역의 점수가 월등히 높았다.

한동대는 이를 통해 대학특성화(CK) 사업, 학부교육 선도대학육성(ACE) 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LINC) 사업,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사업에 모두 선정되며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 소위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장순홍 총장은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 교육, 자유학기제, 창업교육 등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대용 기자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가을학기 학생모집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5년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문

1. 신학 대학교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2. 신학 대학원
 -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3. 일반 대학교
 -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 5) ESL 과정 - 1년
 -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4. 홈스쿨링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의 대안으로 크리스찬 홈스쿨링 교육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크리스찬 홈스쿨링은 크리스찬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의 홈스쿨링은 무너진 가정과 교육의 회복을 위해 앞의 본질을 앞세우고 제자도를 실현하기 소망하는 가정들의 결단과 헌신을 격려하며 견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기독교식 홈스쿨링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들과 교사들이 전문 지도합니다.

- * 이번 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 본 학교는 분기별(쿼터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가을학기 개강일 : 2015년 9월 21일(월) ~ 11월 27일

겨울학기 개강일 : 2015년 12월 07일(월) ~ 2월 12일

봄 학기 개강일 : 2016년 2월 15일(월) ~ 4월 22일

여름학기 개강일 : 2016년 5월 16일(월) ~ 7월 22일

가을학기 등록 안내 : 2015년 9월 18일 까지 등록 마감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13)999-6884(대표전화), (213)272-6031, (213)235-6889

Need color ?

Precise Enhancement Multi-function Printer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 / 칼라프린트 / 칼라스캔
팩스/네트워크/Mobile Productivity
최고의 인쇄 품질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TEL : 213 705 7778
www.GreenMWild.com . GreenMWild@Gmail.com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 C554e Colour B&W 55/55 ppm
- C454e Colour B&W 45/45 ppm
- C364e Colour B&W 36/36 ppm
- C284e Colour B&W 28/28 ppm
- C224e Colour B&W 22/22 ppm
- Dual Scan ADF 160opm Duplex
- Dual Scan ADF 80opm Simplex
- Emperor Drive!
- USB Print
- Colour Internet Fax
- Mobile Support



Simitri with Streamer *Optional : Fax & Finisher

포스트모던 다원주의 문화에 들어맞는 달라이라마(1)

이슬람과 유교, 천주교 등 다양한 종교를 연구해 온 선교신학자 이동주 소장의, '라마교와 그 주장 달라이라마'에 대한 분석 자료를 연재하여 라마교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주

- 1. 포스트모던 다원주의 문화에 들어맞는 달라이라마
- 2. 밀교 철학, 율법법기론적 사랑 추구로 사회 타락 우려
- 3. 달라이라마, 무당 깊이 신뢰하고 귀신에 얽매어 있어

달라이라마는 한국인에게 전하는 메시지에서 “한국인은 진리를 따르는 면에서 티베트 사람들과 쌍둥이 형제와 같다”고 말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마음이고, 대승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자비심에 바탕을 둔 선한 마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비폭력’이라며, 진정한 자비심을 실천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대승불교의 핵심적 가르침을 자비심이고 공(空)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공’이란 단순히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존해서 있다”는 뜻이며, “무엇이든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뜻이라고 한다.

달라이라마가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공’ 사상은 대승불교의 무이(advaita)론을 포괄하여 석가모니의 12연기설을 포괄한다. 그는 이를 티베트 고유의 칼라차크라(시륜교) 실천으로 전개시키고 있다. 칼라차크라 불교에 관해서는 본문에서 다룬다.

그는 비폭력을 실천해야 할 이유에 대해 “세상의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어져 있으므로, 내가 행복하려면 반드시 남의 행복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20세기는 폭력과 유희 시대였으므로, 21세기를 비폭력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 불교의 연기론에 입각해 자비를 실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세계에 여러 가르침과 종교가 필요하다며 종교다원주의를 표명하고, 특정 주장을 지나치게 선포하는 것을 비판하며,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종교 간 진정한 조화와 발전’을 추구한다고 한다. 이렇게 그는 21세기 포스트모던 다원주의 문화에 꼭 들어맞는 말을 통해 인기를 한 몸에 모으고 있다.

그는 1989년 세계 평화와 자유를 위한 비폭력주의 실천을 이유로 노

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그는 수상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억압받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세계 평화와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이 상을 받게 된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상이 변화를 위한 비폭력주의적 실천이라는 새로운 전통을 세운 마하트마 간디에게 바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분의 비폭력주의적 삶은 저에게 교훈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1951년 티베트는 중화민국에 병합됐다. 1959년 티베트인들은 달라이라마를 지키기 위해, 랏사에서 중국의 정치적 탄압에 항거하여 봉기하였다. 그때 6,000여 불교 사원이 파괴되었고, 120만 명의 티베트인들이 학살당했다.

그 해 달라이라마는 결국 인도로 망명하였다. 망명 직후부터 지금까지 그는 40년 동안 40개국을 방문하였고, 미국 방문 시에는 뉴욕 맨해튼 센트럴파크에서 교황 방문 이래 최대 인파인 4만여 군중들께 평화와 관용을 설법했다.

또 시카고와 인디애나폴리스 등



이동주 소장
선교신학연구소

기 때문이다. 한역된 경전 수가 경부와 율부(간쑤) 모두 444부에 비해 한역되지 않은 경전 수가 670부이고, 한역된 논부(판찰: 인도학자들의 주석) 107부에 비해 번역되지 않은 것이 3,452부나 된다고 한다. 그 중 다수가 밀교 경전과 그 주석들이다.

1. 티베트의 전통 종교와 건국 신화 불교가 유입되기 전 티베트의 토속 신앙은 본(Bon)교라고 하는 샤머니즘이었고, 티베트 유목민들은 천지의 영들과 자연을 숭배하고 주술을 행했다.

그러나 티베트의 건국 신화는 주후 5세기경 대승불교가 유입된 후에

종교를 초월한 관용과 평화 주장

포스트모던 다원주의 문화에 들어맞아

미국에서도 달라이라마를 따르는 크리스천들 늘어나고 있어

에서 열흘씩 강연회를 가지며 ‘칼라차크라 세계평화 법회’를 주재하였다.

그는 청소년들의 폭행 원인에 대해, “어른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갖든 따뜻한 심성을 북돋워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아이들에게 연민을 깨우쳐 줘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매일 5,000명에서 7,000여 명이 몰려 들었다. ‘목회와신학’ 2000년 2월호는 미국에서 달라이라마를 따르는 크리스천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그가 종교를 초월하는 관용과 평화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티베트 불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인도의 아티사가 전한 교의와 서장이 번역 대장경은 어느 것보다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티사는 티베트 최초 밀교 종파인 카담파의 원조이며, 그의 가르침이 바로 달라이라마의 주장과 같은 칼라차크라이다.

한국에서 티베트 불교가 진흥할 만한 또 다른 이유는 티베트어가 산스크리트어와 문장 구조가 같아 경전 내용이 정확히 보존됐을 뿐 아니라, 분실된 많은 인도 경전을 대신하

형성되었다. 그 신화 내용이 ‘관세음보살의 축복으로’ 최초의 티베트 민족이 생겼다고 설명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예전에는 티베트 전 지역이 물로 덮여 있었는데, 그 물이 줄어들면서 산과 계곡이 생기고 야생 동물들이 있게 되었다. 그때 관세음보살의 축복으로 아버지 보살 원승이와 어머니 바위 귀신이 교합하여 많은 원승이들을 낳았는데, 이들이 점점 지혜가 생겨 인간으로 변하게 되고 최초의 티베트 민족이 되었다. 이들은 점차 40개 넘는 소왕국을 이루었다.

이와 같은 티베트 신화는 한국의 건국 신화와 같이 이 땅에 하강한 하나의 신적 존재가 인간 내지 짐승과의 결합에 의해 태어남을 설명하면서, 그들 시조가 신적인 혈통이라는 것과 그들 민족이 신적인 후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땅의 존재와 결합하여 자녀를 번식하는, 하늘에서 하강한 신에 대한 관념은 고대 무교 사회의 신관과 인간관을 반영하고 있다. 이 단군 신화나 티베트 신화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신이 인간이나 짐승처럼 결혼하고 출산하는 모티브(motive)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혼인-

출산 모티브’는 고대 유목민 사회나 농경문화 사회의 출산 신앙(Fertility Cult)과 자연숭배 신앙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티베트 샤머니즘에는 전통적으로 영매(Kuten)가 있다. 그는 자연계와 초자연계를 매개하는 사람이다. 티베트인들은 이 영매 속에 들어간 영을 신관(神官)이라고 한다. 그들은 그의 신탁(神託)에 의해 예측을 하며 신의 보호와 치유를 받는다고 믿는다.

티베트 최초의 통일왕국은 B.C. 127년 나티젠빠라는 마가다국 왕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눈썹이 터키색이었으며, 눈에는 물갈퀴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를 남이 알까 봐 티베트 쪽으로 보내었는데, 티베트인들이 그를 하늘에서 왔다고 여겨 왕으로 섬겼다고 한다. 그는 주위 소왕국들을 모두 통합하여 율부라강이라는 최초의 통일왕국을 세웠다.

불교 전래에 관한 전설에 의하면 주후 4세기경 불교의 ‘성전’을 넣은 상자와 금빛 보탑을 넣은 상자가 하늘에서 서장 왕궁의 지붕에 떨어졌

과 중국인이) 다투어 자기 조국의 신앙을 선전했는데, 이들이 죽을 때 관세음보살 이마에 있는 눈(Stir-nauge)에서 눈물이 땅에 떨어졌다고 한다. 이는 이 여인들이 보살의 화육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한다. 그 뒤로 두 여인은 백다라(white Tara)와 녹다라(green Tara)로 숭배된다. 백다라는 티베트 불교에서 아디불(Adi-Buddha, 본초불)의 배우자(consort, 샤틀리)로 알려져 있다.

문선 공주는 본래부터 손첸감포왕의 아내가 아니라, 그의 아들 쿵손 쿵첸왕(621-643)의 아내였다. 그런데 혼인 후 3년이 못 되어 쿵손쿵첸왕이 죽자, 유목민의 습관을 따라 다시 왕위에 오른 그의 시아버지 손첸감포왕의 부인이 되었던 것이다.

손첸감포는 본래 본교 신앙인이었으나, 그의 두 왕비가 불교도였음으로 불교로 개종하여 많은 경전을 가르치고 사원을 지었다. 그러므로 그는 관음의 화신이자 자비의 스승이자 서장의 수호자로서 존경받았다.

위와 같이 7세기 초 손첸감포왕에 의해 티베트에 전래된 불교는 8세기 후반에 이르러 티송데첸왕(Khri-sron lde-btsan, 742-797)에 의해 국교로 정해졌다. 그러나 그는 중국 불교보다 인도 불교를 선호하여 이를 국교화하고자 했다. 그때 그는 돈황을 함락시켰는데, 그로 인해 중국 선승 마하연이 티베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티베트 내부에서 인도 불교와 중국 불교의 대립을 빚게 된 것이다.

이때 왕은 삼예사원에서 산타라 크시타의 제자 카말라실라(740-797)와 마하연에게 논쟁을 시켜, 진쪽이 티베트를 떠나도록 명하였다. 이 논쟁이 ‘삼예의 종론’이다. 이때 마하연은 일체행위를 부정하고 ‘돈오’를, 카말라실라는 장기간 수행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달성되는 ‘점수’를 주장하였다. 논쟁의 결국은 카말라실라의 승리로 돌아가 마하연은 돈황으로 추방되고, 티베트는 본격적으로 인도 불교적 국가로 확립되었다.

그러나 티송데첸왕의 죽음 후 왕조 내 분열로 843년 티베트의 토번 제국은 붕괴되고, 불교는 각 씨족세력과 결합하여 종파불교를 형성하게 되었다. 티베트 불교 역사는 이 혼란기를 경계로 전전기(前傳期)와 후전기(後傳期)로 나뉜다. 전전기는 국가 불교 시대고, 후전기는 종파 불교 시대다. 티베트 불교는 통제력을 잃은 후전기 씨족 불교 종파 때에, 성적 실천을 포함한 천하고 잡박한 탄트라 불교로 전락한 것이다.

(계속)



▲콧물빼기 시럽으로 환자가 치료 받는 모습

비염, 축농증 지긋지긋한 콧병 치료는 콧물빼기 치료가 해답!



항상 코가 막혀있고
아침이면 콧물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오랜 시간 비염과
코막힘으로 냄새도 못 맡는 환자

체험사례1 9세 여아

콧물빼기를 하니 너무 많은 코가 빠져 나왔다. 환자가 침을 맞으려 하지 않아 발효 한약인 ‘코편해환’을 복용하면서 1주일에 두번씩 치료를 받았다. 치료 5번이 끝난 후, 환자 부모가 “이젠 저녁에 잠을 잘 때 입을 벌리지 않고 코로 숨을 쉰다”면서 너무 좋아했고, 10번이 끝나자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

체험사례2 여대생

어릴 때 부터 잠을 잘 때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 아침이면 입이 말라 많은 고생을 했다. 1주일에 두 번씩 내원, 콧물빼기와 침 치료를 병행했고 6번 치료후엔 자신도 모르게 코로 숨을 쉬면서 자게 됐다. 그래도 완전히 고치겠다고 15번정도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엔 코로 숨쉬는 것이 너무 좋으면서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고 했다.

경산한의과병원

3030W, Olympic Blvd., Suite 202, LA, CA 90006(삼호관광몰 2층)
류재규 원장/경산한의과 대학교수 T.(213)380-0853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종교적 갈등이 없는 학교

박상진 등 | 예영 | 2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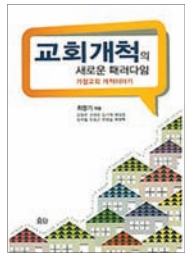
‘회피 및 전학 제도’는 평준화 체제에서도 원치 않는 종교계 학교에 배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학교 배정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또 입학 후에도 종교적 이유의 전학 희망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저자들은 종교계 학교가 정상화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학생의 종교 자유와 종교계 학교의 종교교육 자유 충돌의 해결로 파악하고, 그 최적의 방안을 바로 이 제도로 보고 연구했다.



교회 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최영기 | 오단 | 21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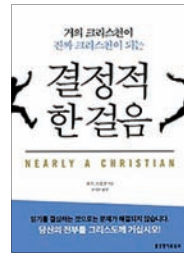
가정교회를 개혁하여 잘 정착시킨 기존 사례집을 증보 수정했다. 최근 <가장 오래된 새 교회, 가정교회>를 출간했던 저자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더 이상 교회 개혁은 안 된다”는 것이 정설이 되어 버린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교회를 개혁해야 할 사명이 있는 목사님들을 위해 책을 다시 엮었다. 7곳의 교회가 ‘가정교회’로 개혁되는 모습들을 생생하게 담았다.



결정적 한 걸음

찰스 스피전 | 생명의말씀사 | 136쪽

‘거의 크리스천’들을 ‘진짜 크리스천’들로 만들, 찰스 스피전의 처방이 담겼다. 믿음에 대한 사람들의 의문과 생각들에 대해, 필요한 항목을 찾아 읽도록 했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 하더라도, 책에서 제시하는 문제들에 정확히 답할 수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단순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문장, 다양하면서 구체적인 예화들을 활용해 구원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했다.



성경독서 가이드

전신지 | 넥서스CROSS | 296쪽

저자의 ‘성경독서 수업안’을 모아 엮었다. 1부는 ‘성경독서의 가치와 방법’을, 2부는 8편의 ‘성경독서 수업안’을 소개한다. 저자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 정립에 성경만큼 안전하고 좋은 교재는 없다고 확신했고, 교안을 만들어 어머니들과 교사에게 나눠 주면서 지도하게 하는 ‘성경독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논술과 독서 지도에 골머리를 앓는 크리스천 부모와 교사들을 위한 책.



REVIEW

그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본심”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영혼이 잘되기를 응원하신다!

본 서는 첫째, 절대믿음과 절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 둘째, 신앙의 진전과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셋째,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적 삶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넷째, 삶과 신앙의 위기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통한 권면과 격려를 아낌없이 전해준다.

오늘날, 불안과 혼돈의 시대는 어느새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되고 말았다. 우울과 절망의 뉴스들은 시사각 업데이트되고 있다. 믿음과 진리만을 가지고 겁없이 세상 앞으로 돌격하기에 당신의 믿음은 생

가득한가? 혹 생기는 온데간데없이 지친 영혼과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럴 때야말로 현대 크리스천들의 삶에 근본적인 생기와 믿음의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말씀뿐임을 절감하게 된다.

저자 김문훈 목사는 풋풋한 신학 생시절,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 아닌가 할 정도로 심각한 육체적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시작된 목회의 길은 녹록하지 않았다. 포도원교회에 전도사로 처음 부



하나님의 본심 김문훈 두란노 | 232쪽

임했지만 목회현장은 뼈아픈 현실이었다. 그러나 그 현장은 그를 성장하게 했고 결국 말씀만이 자신과

성도들과 교회를 살린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었다.

저자는 말씀을 믿고 현실을 극복하며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데 그 누구보다도 깊은 열정이 있다. 방송과 집회 요청으로 국내외를 오가며 자신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쉽게 전하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결론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라 할 수 있다.

저자 김문훈 목사는 본서를 통해, 성도들을 향해 말씀의 생기를 공급받아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대인들을 위해 알아

듣기 쉽고 유쾌한 화법으로 설교하는 저자의 핵심 메시지가 담긴 본서는 삶의 어떤 순간이라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믿음의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 책은 믿음의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저자의 메시지와 함께 그림을 더하여, 전도 대상자 또는 지친 성도들에게 선물용으로 적합하다.

저자 김문훈 목사는 1999년 포도원교회 3대 담임목사로 부임해 지금까지 목회를 이어오고 있다. 포도원교회는 매주 300명 규모의 전도대가 흠어져 전도하며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다. 이영인 기자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에 에세이를 연재하며 교회를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영혼의 저널리스트**로 주목 받고 있는 소강석목사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신앙, 역사를 향한 뜨거운 외침이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꽃씨 심는 남자

소강석 에세이집

“그는 거친 황야를 달리는 들소처럼 가슴을 뜨겁게 하는 아성과 소망이 있다.”

- 이어령 교수 -

“목사, 시인, 애국자 등 그가 지닌 세 얼굴이 때로는 교차하고 때로는 번갈아 드러나면서 글 읽는 맛과 호소력을 더해준다.”

- 이선민 조선일보 기자 -

336면 / 14,000원

샘터

소강석 기념식 낭송시 모음집



251면 / 10,000원

쿰란출판사

평화의 꽃씨

한국교회 최초 기념 시집! 목회자들에게 기념예배 참고와 교회 대표기도를 하는 중직자들에게는 기도문 작성에 큰 도움이 될 영성과 감성의 시적 언어! 예배 인도자들이 꼭 한 번 읽어야 할 시집!

소강석 지음

전국 기독교 및 일반 서점 절찬리 판매!

“십자가와 희생, 교인들은 실천할 준비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의 세족식을 왜곡했을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삶의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 것을 보면 성경이 아닌 일반 사회의 기준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전혀 기독교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문제를 풀어 나갑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위험한 일인 줄도 모르는 채 말입니다(들어가는 말 中)"

오대식 목사(높은뜻의교회)는 이러한 현상을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결과”라고 진단한다. 성경의 올바른 해석은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과 삶의 기준을 제시할 것이기에, 그저 교회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했던 설교들을 토대로 안식년인 올해 초 집중 집필해 완성한 책 <왜 교회는 예수님의 세족식을 왜곡했을까?>는 그러한 진단의 결과물이다.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토대로 1부에서는 교인들 개개인이 바르게 생각해야 할 내용들을, 2부에서는 교회가 바르게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내용들을 각각 펼쳐 놓았다.

오 목사는 책을 통해 ‘탕자의 비유(눅 15:29-32)’ 속 탕자가 아닌 형에게서 신성모독죄를 발견하고, ‘실로암 못에서 눈이 밝아진 맹인의 이야기(요 9:13-25)’ 속에서 ‘누가 진짜 맹인인가?’라고 묻는다. 책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세족식(요 13:4-11)’에서 ‘사랑과 섬김의 본’ 그 이상을 바라보고, ‘무화과나무와 도끼의 비유(눅 13:1-9)’에서는 ‘회개와 멸망의 경고’ 너머 ‘남은 삶’에 대한 간절함을 말하고 있다. 다음은 오 목사와의 일문일답.

-다양한 본문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가지로 요약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나 신앙인들에게 있어 십자가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주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기도 하고, 말씀도 하시고 몸소 보여주시는 것인데,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 많이 놓치고 외면하고 있는 부분들을 모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고 또는 색다른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이는 제 표현으로 ‘바르게’ 보고 싶은 마음이고, 성경에 그런 것들이 보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책 제목의 뉘앙스도 그렇지만, 기존의 성경 해석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신지요.

“책의 제목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곤 합니다(웃음). 책 제목은 14가지 본문 중 하나의 소제목에서 따왔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아니라, 기존의 해석과 함께 감춰진 것들까지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신앙의 영역을 넓혀 나가자는 것입니다. 기존 해석이 있는 가운데, ‘이런 각도에서도 보면 좋겠다’는 의도가 큽니다.”

-이런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게 되신 계기나 동기가 있었을까요.

“평소 느끼고 깨달아 은혜받은 부분들을 성도들과 나눴는데, 굉장히 놀라고 새로워하면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나 ‘희생’에 대한 이야기라 부담스러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런 메시지들을 속 시원하게 접하지 못했다’며 잘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실천하려 애를 쓰셨습니다.

이를 보면서 ‘교인들은 말씀에 대한 실천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잘 인도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역할만 목회자들이 잘 수행한다면, 교인들은 얼마든지 은혜를 받고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외에 다른 분들께도 나누면 좋겠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들이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신학교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한국만의 특수한 문제일까요.

“목회자들이 이런 메시지를 회피한다기보다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왜 교회는 예수님의... 오대식 생명의말씀사 | 218쪽

양분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과 자신 내면의 소망과 기대를 이루는 것의 차이랄까요.

한국교회가 부흥 성장하면서, 성도들의 욕망과 욕구들을 이루는 형태의 신앙을 많이 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20-30년 오다 보니, 이러한 신앙이 고착화된 것이지요.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숫자가 늘어나고 뜨거워지기 시작한 20-30년 전부터 오늘날 위기와 몰락의 인자는 숨어 있었고, 그것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뿐일 것입니다.”

-그러한 메시지는 20-30년 전 당시로서는 필요했던 것 아닐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교회 교인들의 상황에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진 것이지요.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신분 상승을 소망했고,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해지기를 바랐을 때, 교회가 사람들의 그러한 욕망을 채워 주는 중요한 필요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과 코드가 맞아 교회가 팽창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복음의 본질이

그것만이 아님을 함께 가르쳐야 했는데, 그것을 놓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때는 ‘예수 믿으면 잘산다, 복 받는다’고만 해도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깊은 신학적 고민 없이 그렇게 해 왔던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래도 목회자들의 잘못이 크지 않나 봅니다.

결국 목회자들의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의 결과물을, 오늘날 목회자들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줄어들어 교회가 문을 닫거나 목회자들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회자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목자나 안내자,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 주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여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어떠한 실천을 하고 계신지요.

“일단 저희는 교인들이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할 것을 가장 강조합니다. 모든 교회가 같은 이야기이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말씀의 가르침대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죽는 역할을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감당하자고 권면합니다. 물론 저부터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겠지요.

신앙생활 중에도 교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유혹을 받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넘어가지 않고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가 가장 많은 유혹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장사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세속적 가치관과의 유혹은 목회자가 최고로 심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목회하고 하나 하나 그대로 실천하려 고민하는 것은 제 몫이고,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하면

서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은 교인들의 몫입니다. 저도 힘들지만 열심히 하려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교인들과 함께 실천하는 것이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책에도 나오지만, 높은 뜻의교회 앞서 일본에서 사역하신 걸로 아는데요.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본에 대한 관심도 크고, 많은 성도들이 선교지로서의 일본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직접 느끼신 일본은 어떠했나요.

“일본에서 목회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친구 대신 사역을 시작해 10년간 일본에 있었습니다. 일본 말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2-3년 사역을 안정시키고 돌아오려 했는데 사역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일본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제 목회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다른 분들보다 일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일본 기독교인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를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를 감수하고 시작합니다. 신앙인으로 살면 힘들다는 것을 이미 알고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런 상태에서 신앙인이 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복음의 진리와 신앙에 대해 알아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독교인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일본에서 목회하면서 보니, 일본인들은 성경공부를 6개월에서 1년간 진행한 후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에 입문하는 순간부터 철저히 삶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이와 비교해 한국교회는 신앙생활에 있어 희생이나 십자가의 삶과는 거리가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이대웅 기자



열매나눔재단이 말라위 지역에서 섬기는 양국 국가대표들과 함께한 (오른쪽부터) 오대식 목사와 박영숙 감독, 열매나눔재단 전 대표인 김동호 목사(맨 왼쪽) ©열매나눔재단 제공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0,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대리점 모집

점게 하는 세계 "에미나"

우리 가정에서 생활세제는 20가지가 넘습니다. 대부분이 화학세제로서 아토피, 알레르기,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고,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이 화학세제를 친환경, 무공해, 향산화 효소세제인 “에미나”가 이제 대신합니다.

일본에서 토양 속의 이로운 균을 이용하여 효소로 제조된 “에미나”는 세탁, 설거지, 화장실, 욕조, 마루, 생활 용품, 세차, 어항, 냄새제거, 목욕, 양치질, 애완동물을 관리, 화초, 텃밭가꾸기에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무공해 친환경 세제입니다. “에미나”는 세제구입 비용과 물을 절약 할 뿐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세제입니다.

식당 화장실 냄새제거 특효
“에미나” 스프레이 하시면 어떤 냄새든지 쉽게 없어집니다. 손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지독한 식당의 화장실 냄새가 없어지지 않으면 환불해 드립니다.

【가정 필수 제품: 밥줄】
밥 지을 때 밥솥에 두면 밥맛이 좋아지고, 24시간 후에도 밥의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생활 필수 제품: 생생 팩】
생생 비닐팩에 채소, 과일 등을 보관하면 20일이 지나도 생생합니다.

사용 효과

- **세탁:** 작은 량으로 화학 물질을 없애 주고, 유전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세탁물의 냄새가 없고, 보송보송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옷으로 만들어 줍니다.(아토피, 피부병, 상처 등)
- **청소:** (스팀 청소기, 걸레 등)에 사용하시면 냄새를 없애주고 마루, 가구, 가전제품, 세차 시 윤이 나고 먼지가 잘 붙지 않습니다.
- **설거지:** 기름기, 탄 것이 잘 제거되고 행굼을 적게 하여 물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설거지 한 물은 배수구를 청소할 뿐 아니라 식물에 주면 좋은 토양을 만들어 줍니다. 설거지, 청소할 때 고무장갑을 끼지 않아도 되고, 맨손으로 하면 피부가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됩니다.
- **집안(가구, 이불, 커튼 등), 차, 사무실에 뿌리면 집안의 공기가 깨끗해지고, 친환경(공공미, 화학물질, 김파 방사선 절감 등)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 비염 등에 좋습니다.**
- **냄새 제거:** 화장실, 애완동물, 신발, 등에 뿌리면 냄새가 없어집니다.
- **애완동물:** 목욕시킬 때 행굼을 철저하지 하지 않아서 습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어항의 수질이 변하지 않아 냄새가 없습니다.
- **농작물, 화초 재배:** 비누가루를 땅에 뿌리거나, 작물에 스프레이하거나, 세탁, 설거지 한 물을 주면 토양을 바꾸어 무공해 농작물을 재배할 뿐 아니라 병충해(진딧물)가 없고 성장이 좋아 질 좋은 작물을 많이 생산합니다. 고추 작물을 사할 키보다 크게, 해바라기를 4m 정도 키울 수 있습니다.
- **과일, 야채 씻을 때 사용하시면 농약을 분해하며, 향산화 작용으로 신선함이 오래가고, 꽃에 뿌리면 오랫동안 시들지 않습니다.**
- **양치질 할 때 극소량을 치약에 발라 사용을 하면 입안과 치아가 깨끗해지나 먹지는 마십시오.**
- **차의 에어컨 필터에 뿌리면 성능이 좋아지고, 집안이나 냉고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 **활성산소 제거, 정전기 방지, 신선도 유지, 에너지 절감, 해충기피, 습도조절, 결로 곰팡이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

- 세탁 시에는 세탁기(40리터)에 3~5g(티스푼 1개는 5g) 정도 넣은 후 세탁, 담가 두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 집안 청소 시(화장실, 욕조, 화장실 등) 물의 1/1000 량으로 뿌려 주시면 됩니다.
- 작물에 뿌릴(스프레이) 시 1/5,000~1/10,000 정도로 1주에 한두 번 정도, 나무는 2g 정도 땅에 묻어 주면 더 좋고, 시들음 채소, 화초는 3일 정도, 나무는 2달 정도에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사용 하시면 식물이 마를 수가 있습니다.
- 아토피 피부 1/1000 정도, 아기 목욕 시에는 1/10,00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합니다.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완성배너 스탠드포함 \$65 (할리우드급 제리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탐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시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참가하시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 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서신(심내외, 장외), 제작, 연속물인쇄 전문
www.junimedia.com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용용서디얼범음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1. 전도용품 세팅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2. 전도용서 디얼범음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용용서, 실교사디얼범음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합니다!**
5. 완성배너 (스탠드 포함 \$65) **Free Shipping!!!**

전도용품티슈 1,000set(\$180)
고급할리우드급 1set에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전도용서
각종 행사용 및 전도용품, 선용용서에 구비되어 있으나 불시에 사용할 경우의 어려움과 다양한 종류의 맞춤제작을 누리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 트랜스미션 ✓ 타이밍벨트
✓ 브레이크 ✓ 튜업정비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Tel. 323.737.2922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 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에도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항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Special Price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인체공학적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써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 로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 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쇼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1주분 다이어트 약 \$60 부터...

치아미백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역!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탄살 방지
• 건조로 인한 굵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영어: 213.380.6868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2015 현대 소나타/엘란트라 리스스페셜

0% APR, No Payments for 90 Days!

Sonata 98\$/Month(3 Yrs.) Elantra 88\$/Month(3 Yrs.)

2015 Hyundai Sonata & 2015 Hyundai Elantra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Interns, families, church members, and internship supervisors gathered on Tuesday night for a celebratory dinner to conclude the internship program.

A Pastoral Internship to Penetrate Cultural Boundaries

BY RACHAEL LEE

For the first time, Korean American college students and recent graduates had the opportunity to intern at African American churches and learn from African American pastors and lay leaders.

"This is a small scale fulfillment of a dream that I had been holding on to ever since the time of the L.A. Riots," said Dr. Young Lee Hertig,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the Study of Asian American Christianity, which hosted the program. The tensions in the community led Hertig to ask the questions, "How can we build a multi-ethnic coalition, and how can we break through cultural barriers?"

Thus bloomed the idea to invest in young people, and allow them the opportunity to learn from and fellowship with people in other cultures, Hertig explained.

The program, granted by the Forum for Theological Exploration (FTE), ran from July 8 to August 29, and consisted of weekly meetings with Hertig, weekly site visits, and meetings with the interns' respective site supervisors -- Elder Oscar Owens of West Angeles Church of God in Christ; Rev. Charolyn Jones of First African Methodist Episcopal (FAME)

Church of Los Angeles; and Rev. Larry Campbell of FAME Church of Pasadena.

Through exposure to the Wednesday night worship services at their respective internship sites, and meetings with the pastors and lay leaders, the four interns were able to learn much about the differences in culture and style of worship between African and Korean American churches.

Jonathan Hong, one of the interns who was at West Angeles Church, said that one scene that vividly stays in his memory is that of Bishop Charles Blake, the senior pastor of West Angeles, asking if anyone in the congregation lacked money for food or gas -- a memory that was echoed by Jinnie Choi, who also interned at West Angeles Church, as having had a significant impact.

"This might've been a shameful thing to ask or admit in the Korean American church," said Hong, who recently graduated from UCLA.

"But at West Angeles, I saw that one by one people in the congregation were coming up to offer money," he continued, adding that this was already after the offering had been collected.

Jinnie Choi, a sophomore at Azusa Pacific University (APU),



added that the free-spirited style of worship at West Angeles challenged her to come out of her comfort zone and be more expressive in her worship as well.

"I realized that when cultures merge together, those cultures become more defined," said Edward Kim, who interned at FAME Church of Los Angeles. "We're able to say, 'This is my culture, and that's your culture. And this is what I want to learn about your culture, and here's what I can offer you from mine.' There's a lot of identity-finding in that."

The significance of history in the African American church is another aspect that stood out to the interns, which was emphasized not only during direct meetings with internship supervisors, but during the worship services as well.

"History is discussed in sermons, and in normal conversations among the congregants. Who they are, where they're going, and where they come from is constantly talked about," said Edward Kim, an upcoming senior at APU.

While interns were able to learn much about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African American church at their sites, they simultaneously had time to reflect and process what they are learning and discover their identity on deeper levels through weekly meetings with Hertig and their fellow interns.

Dooly Kim, a second year stu-

dent at APU who interned at FAME Church of Pasadena, said he was forced to "face his weaknesses" during the internship, such as a language barrier as a student having recently come from South Korea to study, and situations with his family. He described the experience as "painful," but he said he was "happy to face that struggle fully" because it was through the experience he learned more deeply that he "is the author of [his] own life."

This bilateral internship is one in a series of initiatives that ISAAC has taken to bring the Asian and African American communities together, beginning with the symposium last November with Asian and African American leaders, and subsequent bilateral events in Little Tokyo and in the home of an Asian American pastor.

"There is definitely a space for ethnic churches -- for Koreans to be able to bring out and eat their kimchi without having to look over their shoulders," Hertig explained. "But how can we take some time to step out of our comfort zones to worship all together?"

"I pray that God would revive our hearts as we hang out with the most unlikely people," she added.

ISAAC has plans to continue the bilateral internship next summer, and to eventually send African American ambassadors as interns to the Asian American church.



Top right photo: Jonathan Hong (left) and Jinnie Choi (right) with their internship supervisor, Oscar Owens (center); Bottom left photo: Edward Kim (left) with his internship supervisor, Charolyn Jones (right); Bottom right photo: Dooly Kim (right) with his internship supervisor, Larry Campbell (left). (Photos courtesy of ISAAC)



How Can I Own a Home If I Have a Bad Credit Score?

Banks to participate in homeownership fair to help inform those with low income, bad credit

BY RACHAEL LEE

Korean Churches for Community Development (KCCD) is hosting its 14th annual homeownership fair on September 19 at Wilshire United Methodist Church from 9 AM to 1 PM, during which industry professionals and representatives from banks will be present to help members of the community to be more informed on how to go about purchasing homes.

The fair is particularly geared towards those who may have low income or bad credit, and will provide information on how such individuals still have options to be able to own homes. The fair will consist of exhibits and booths with bank representatives; workshops on how to improve credit scores, and the various down payment programs available; and direct counseling sessions with professionals and bank representatives.

Some of the banks that will be represented at the fair include Union Bank, Bank of the West, U.S. Bank, BBCN Bank, and Habitat for Humanity, which is particularly focused on helping those with

severely low income.

"Each bank has distinct qualities and offer different programs for different needs," said Hye-pin Im, the executive director of KCCD. "The homeownership fair is a great opportunity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in homeownership to be able to access information to all of those different programs in one place."

KCCD's annual homeownership fairs began in 2002, as Im saw the need and the impact of homeownership on members of the community, particularly Korean Americans.

"There's this stereotype that Korean Americans are well-off, but the statistics show otherwise," Im explained. Indeed, according to a 2010 U.S. Census Bureau, only 36 percent of Korean Americans in Los Angeles were homeowners, ranking them among the ethnic groups with the lowest homeownership rates.

"Children of homeowners are 116 percent more likely to graduate from college, and more than 50 percent more likely to own their own homes within 10 years



(From left to right: Woogie Kim, Robert Park, Sang Shin, Hye-pin Im, Sunny Park, Austin Park) Representatives from banks, members of the KCCD board, and representatives of political leaders were present at a press conference on Wednesday to introduce KCCD's 14th annual homeownership fair.

after moving out from their parents' homes," Im continued. "And homeowners are 15 percent more likely to vote. Homeownership is a tremendous benefit to all parties -- the banks, the government, and the community."

Woogie Kim, a pastor of Shalom Church in Torrance and a board member of KCCD, expressed hopes that the fair would help to increase awareness about homeownership, and that that would

eventually lead Korean Americans to be more engaged and have ownership over their local communities as well.

Political leaders will also be invited to the homeownership fair, including California Assemblymember Miguel Santiago and members of the L.A. City Council, in hopes to show "the potential impact that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can have," according to Hun Choi, a housing counselor at KCCD.

Sacramento Zion Presb. Church Votes to Leave PCUSA

97 percent votes they would leave even if they lose church property

BY RACHAEL LEE

Zion Presbyterian Church, a Korean church located in Sacramento, CA, has recently decided to leave the Presbyterian Church (U.S.A.), even if leaving the denomination means losing the church property.

The church held a congregational vote to be dismissed from the PCUSA on August 30, which resulted in 100 out of 103 active congregants (97 percent) voting in favor of being dismissed, even if they are unable to keep the church property in doing so. The main sanctuary, the English ministry's sanctuary, and five buildings are at stake, amounting to at least \$3 million in property.

The property of every PCUSA church is "held in trust" by the PCUSA "for the use and benefit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according to the PCUSA's bylaws, and the Sacramento Presbytery states that "property is held in trust because it is a tool for the accomplishment of the mission of the PC(U.S.A.)." As a result, churches that seek to leave the denomination must follow their respective presbyteries' Gracious Dismissal Policies (GDP), which outlines the process the church must go through to be dismissed, and the presbytery's requirements for the church to maintain its property after dismissal.

In the case of Zion Presbyterian Church, which is under the authority of the Sacramento Presbytery, the congregation has the option to either lease, purchase, or lease first and later purchase the church property from the presbytery, should the GDP process continue unto completion.

However, a portion of the Sacramento Presbytery's GDP mentions the "schism" scenario, which was only defined as "a split within the Congregation or its session between a group that wishes to be dismissed from the PC(U.S.A.) and a loyalist minority of whatever size."

If the presbytery determines that there is a schism in the church, the GDP process will be suspended, meaning the church is no longer guaranteed the ability to maintain the property through any of the options listed under the GDP. Instead, the presbytery will determine whether the loyalist group that desires to stay in the PCUSA has enough members and dedication in order to remain as a self-sufficient PCUSA church.

If the loyalist group could prove that it is, it can retain the church property (which would still be held in trust to the PCUSA). Otherwise, not even the loyalist group is guaranteed any options to be able to maintain the church property.

"We couldn't continue in sharing our faith with a denomination that has departed from the Word of God, changed the definition of marriage, and presents sin as though it isn't sin," said Reverend Daniel Lee, the senior pastor of Zion Presbyterian Church.

"I'm proud of the members of our church, who have said they'll continue to hold on to the Word and that they won't compromise, even if it means losing the sanctuary and church property that they've built with their tears and sweat," Lee continued. "We're still uncertain where we'll take all of our 300 congregants including young adults and children, but we will be a church that strides on top of the water as we come out from the boat."

Lee added that the results from the recent vote will be reported to the Sacramento Presbytery. Thus far, the session has discussed joining the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 (ECO) upon being dismissed from the PCUSA.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매점

세크라멘토	916.363.2378	Smile Home Shopping
하와이	808.947.8086	Herb Land
달라스	972.620.2900	Royal Health Department
시애틀	206.229.5466	Health Village



PRO-Z

한국 50만명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www.prozusa.com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